【一】 第四千二百八十八號 (昭和?年?月?日第三種郵便物認可) (日刊)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火曜日】 昭和八年五月十六日 第二號

朝鮮日報

朝刊
本紙夕刊合八面
京城府堅志洞一一九五 朝鮮日報社

社說 戰債에 對한 米態度

一

倫敦經濟會議의 成立은 點키는 華府會商도 이제는 英佛伊獨等主要國과의 會談은 이미 終了되고 아즉 남아잇는것은 日本뿐이다 倫敦會議에 米代表로出席할 國務長官 헐氏는 華府會商이 圓滿히 進行한 結果로 倫敦會議는 開會後不過二個月內에 目的을 達成케되리라고 大膽한 預言을 發하얏다 그러나 事實은 헐長官의 預言과 가치 반드시 樂觀을 不許하는바이잇스니 米國의 인풀레 政策에 對한 佛國의 反米感情은 실로 가벼운 程度가 아니요 또 勞과國의 對弗比率로 英國日本의 對米協調도 아즉 完全한 解決을 보지못한터인데 英米는 오히려 一定한 妥協을 預想할만큼 會商의 內容이 大端密接하다고도 말할수잇스나 日本으로 말하면 米國側으로서 三十弗臺를 主張한다고 傳하니 日本으로서 到底히 承認할수업는일이라 이와가튼 前提아래 그 會商의 結果는 미리부터 波瀾과 曲折을 豫告한다 華府會商의 表面的 成果로 關稅休日案을 드는사람도잇스나 그것도 或은 條件附의 受諾이요 또 或은 아즉도 受諾의 決定이 업스니 지금 안저 그 具體的 成果를 判斷키도 困難커니와 한편으로 獨逸은 輸入制限을 더 嚴格히 行한다하고 埃及은 三割五分의 引上을 發表햇다고하니 國際關稅戰의 一時的 休息도 容易를 못하다

二

그러나 그모든것보담도 먼저 問題되는것은 米國의 對戰債態度다 米國으로서 戰債에 對한 讓步를 勇斷치안코서 列國과의 協調를 企圖한다는것은 마치 根源을 막지안코 防築을 쌋흐려는것과 가타서 水泡의 徒勞가 남을 따름이다 그런데 米國政府의 與黨인 民主黨부터 戰債의 蕩除는 勿論 減額도 不能이라고 際明하는 同時 通貨에 對하야 獨裁的 權能을 許與바든 루-스벨트大統領이 戰債에 對하야도 그만한 權能을 要求하리라고 想像되엇스나 그는 드듸어 그 要求를 斷念하기에 이르럿다고 한다 米國議會로부터 戰債에 對한 二億弗의 銀支拂을 承認한 것으로 말하면 金銀比價를 現在의 比價보담 多少올리어 減額과 同意味라고도 보겟스되 그만큼의 減額은 紅爐의 點雪일뿐더러 그것은 戰債問題를 비쳐로 銀問題를 解決하려는 米國의 老獪한 心算이니 戰債解決에 큰 寄與가 잇는것이 안니다 米國의 이와 가튼 態度에 列國은 무엇으로써 對當하겟는가? 佛國의 內閣은 벌서부터 昨年未拂分의 戰債를 今年에도 不拂로써 突進하려는 空氣로써 비록 閣議의 公式的 決議는 업스나마 거의 決定되다시피 方針이 서잇는 모양이다 오즉 佛國뿐이 아니라 로산누會議의 各國이 米國에 對하야 반드시 業從치안할것은 明若觀火의 일이다

三

米國은 한편으로 金禁止인풀레손으로서 새로운 政策을서워나가다 그새로운 政策이라 結局에 日本等各國이 써오든 陳腐한 方法이다 그러나 米國의이 풀레손은 달아서 米國의 爲替덤핑 이것은 國際市場에잇서 巨大한 權威가아니며 아니되다 이 點에對하야 佛國의 各紙가 米國의 無信을 非難하는 同時 佛國經濟上重大影響을 絶叫하는것도 佛國으로잇서 無理가아니다 米國은 그自身이 인풀레손으로 나가는同時 世界에向하야 關稅障壁의 打破를 高調한다 高率關稅에잇서 어대까지의 先鋒이든 米國으로서는 이풀레손에 依한바 巨大코또深刻한 心境의 變化다 그래도 通貨問題 關稅問題에잇서서는 表面上 國際的協調를 내세우지만 한번 問題가 戰債에다다르면 米國은 모든國際的協調에 向하야 두귀를 막고 안저 强硬한 債權者의 態度를 나타내인다 世界經濟會議에 對하야 米國의 態度는 이와갓다 列國의 態度도 米國만못지안케 國際協調는 第二第三의 問題요 自利自衛가 第一의 問題로 波及하다 이러코 그 무슨 成果가 나올가? 헐長官의 豫言은 어떠한 意味로 解釋해야조흘지 우리로서는 理解키마지 못하는다 世界政局에 對面한 그들이 우리보담 賢明치 안할리업지만 四國의 情勢 그들의 賢明性을 發揮치안는다 勿論 倫敦會議는 그것의 成果가 곳 世界恐慌의 克服을 意味하는것도 아니겟지만 佛先倫敦會議에 잇서 多少의 成果를 엇자고 하더라도 米國은 모름즉이 먼저 戰債에 對한 解決을 지워야할것이다 내려거니 못낸다거니 서로 讓步하는 그 終幕에는 오즉 實力의 勝負가 남아잇슬뿐이니 그러한 마당에 處하야 幾十幾百의 會議를 되푸리하얏자 何等의 好効를 엇기는 어려울것이다

北中形勢去益急迫化
天津北平은 死守
戰火平津波及을 豫想코 緊急軍事會議開催結果
徹底抗日硬論優勢

【天津十五日發電通】中國側 消息에 依하면 形勢急迫함에 鑑하야 十三日夜緊急軍事會議를 召集하야 平津地方에 戰火가 波及할 境遇의 處置에 對하야
一、徹底抗日 一、無抵抗拋棄 一、一戰을 交하야 退却
等의 諸案에 對하야 激論한 結果 硬論이 優勢하야 大體左와 如히 決定하얏다
一、楊村、灤州를 挾한 灤州西岸에 陣地를 構築하야 于學忠軍으로하야금 抵抗케함
一、中央軍에 依하야 北平附近을 死守함
一、平津兩市는 어대까지 退却치안코 北平에 戰火가 及하면 市街戰에 經驗잇는 王照垣과 目下北上中의 第十九路軍으로하야금 徹底抗日을 하게함
一、天津의 市街戰에는 國際關係를 利用하야 日本軍을 租界에 導入하고 列國干涉을 誘發하도록 方策을 採用함

天津에 戒嚴令發布
北平市內도 嚴重警戒

【天津十五日發電通】昨夜發生한 爆彈事件以來 天津 市內에는 戒嚴令이 發布되여 市中의 警備嚴重하고 人心은 恂恂하고잇다
【北平十五日發電通】戰局이 灤東에서 灤西로 移한後에 北平市內에서는 公安局과 戒嚴司令部가 嚴重警戒를 繼續하고 人心動搖防止 秩序維持에 血眼이 되여잇다

產業懇談會閉幕

半島產業、金融各部門의 權威를 一堂에 集合한 十三、四兩日 總督府第一會議室에 開催된 總督府主催의 朝鮮產業政策更新官民合同大評定은 傾聽할만한 幾多의 實際意見이 提出되여 豫期以上의 成果를 收하고 閉會하엿스나 今回의 產業懇談會는 最初의 試驗으로 더욱 時日도 짤은 關係上 討論에까지 進展되지 못하고 主要한 事項에 對하야 各自意見을 陳述한 程度에 그쳣다 따라 總督府는 提供한 意見을 中心으로 專門的 研究調查를 進行케되여 總督府內에 各部門別로 小委員會를 組織하고 成案을 得한後 再次第二回懇談會를 招請하야 結論을 엇기로 되엿다 勿論 研究項目中에서 緊急한 部門은 第二回懇談會開催를 待치안코 豫算編成期까지 成案을 作成하야 明年度豫算에 編入할 豫定이오 第二回懇談會는 九月頃에 開催케되엿다 여하간 懇談會를 그대로 產業調查會로 改編할 意見도 잇스나 實質的으로 產業調查會化는 업고 今後의 進行狀態에 鑑할 模樣이다

史眼으로 본 朝鮮 (九)
朝鮮學의 意義
—自我再認識의 必要—
文 一 平

◇
近日에 使用하는 朝鮮學은 흔이 埃及學과 앗시리아學과 並稱하는 傾向이 잇다마는 여기는 多少 그意義가 다르니 廣義로는 宗敎 哲學 藝術 民俗 傳說할것업시 朝鮮研究의 모든 學的對象이 될만한것은 모다 包含한것이나 狹義로는 朝鮮語 朝鮮史를 비롯하야 純朝鮮文學가튼것을 主로指稱하여야 하겟다

그러나 嚴正한 立場에서 朝鮮學이란 廣義보담도 狹義로 解釋하는것이올타고하겟다 特히 朝鮮學이 儒佛學과 對立하는 境遇에 이르러는 狹義로 解釋할것은 勿論이다

다시 말하면 朝鮮人의 特性을 表示하는 그言語를 비롯하야 朝鮮人의 過去相을 映寫하는 그歷史이며 또는 朝鮮人의 實生活을 朝鮮말로써 내인 朝鮮文學가튼것이 朝鮮學을 構成한 中心骨子가 되여야하겟다

◇
朝鮮말은 朝鮮人과 함께 아득한 녯날에 發生하엿겟스나 그使用은 朝鮮글의 發明보기 다려 비로소 完成의 域에 이르럿스며 朝鮮史는 朝鮮人과 함께 數千年동안 進步하여온것이나 文化的으로 장異彩를 빗내인것은 아므도 朝鮮글을 創定하든 世宗에는 뜨든 그時期가 될것이며 朝鮮文學은 우리 先民이 吏讀로 歌謠를 적기시하든 상한古代에 발서 濫觴하얏스나 그것이 形式으로 內容으로 眞正한 朝鮮文學이 됨에는 亦是 朝鮮글로 적히게된 以後의 일이다

이로보면 朝鮮學은 朝鮮글의 發明과 및 그發達에 依하야 비로소 그 存在의 價值를 增大하게될것은 史實이 證明하는바이다

◇
만일 朝鮮史에서 朝鮮文의 創定 그것을 빼아버린고 假想하자 그럴때는 朝鮮史는 눈바리말이되고 朝鮮史는 얼마만한 歷史가되고 朝鮮文學이 빠진 文學이되어 따라서 朝鮮學의 自立을 보기가 困難하엿슬것이다 오즉 朝鮮말은 朝鮮글의 發明으로의 生命을 담은 로해서 眞正한 朝鮮文學의 樹立을 可能케하니만치 朝鮮글은 朝鮮學의 獨特性을 高調한것이라하겟다

◇
그럼으로 朝鮮글은 朝鮮心에서 생겨난 結晶인 同時에 朝鮮學을 길러주는 肥料라하려니와 朝鮮글이 發明된지 以來 五百年동안에 朝鮮의 思想界는 자는듯 조는듯 朝鮮學의 樹立에 對하야 格別한 進展을 보지못하엿다

그러나 오늘날은 차차 舊思想에서버서나 新思想의 刺戟을 밧게된 朝鮮人은 朝鮮을 再意識할때가 왓다

한편으로 新文化를 바더드림과 함께 한편으로 朝鮮學을 잘 만드러 世界文化에 特殊한 寄與가 잇서야만 할것이니 이는 文化族으로서의 朝鮮人에게 賦課된 一大使命인가 한다

全世界를 聳動한 五一五事件全貌
陸海司三省折衝終了로 十六、七日頃發表

【聯合東京十五日發】陸軍省에서 起草中이든 五、一五事件 發表文案은 十五日夕脫稿되엿슴으로 山田法務局長은 十五日朝 此를 陸軍司法兩省에 提示하고 同意를 求하얏는데 兩省에서는 各大臣의 決裁를 經한後 閣議의 承認을 得할 必要도잇슴으로 該種의 準備手續上 十六日에 發表하기는 困難한 狀態에 잇서 아마 十七日 午後 司法省에서 發表할 模樣이다
【東京十五日發電通】五、一五事件은 三省會議의 折衝이 終了되엿슴으로 本日의 閣議에 報告하야 十六日 又는 十七日 發表할 豫定이다

司法省局長會議 發表文案協議

【東京十五日發電通】五、一五事件公表案文은 記者司法省에서 陸海軍當局에 廻付되야 案文의 檢閱을 受하고잇섯는데 軍部로부터의 案文은 陸軍은 異議업고 但히 海軍만이 異議가잇서 十五日修正案이 司法省에 廻付되여왓슴으로 全部整理가 되야 午後二時부터 司法省次官室에서 局長會議를 開하고 發表文案을 如何히 할가함에 對하야 會議를 開하기로 되엿는데 境遇에 依하야는 十六日關係三大臣이 閣議前에 爲先大綱妥協을 하고 發表하게될것이라한다

有田外務次官 十五日辭表提出

【聯合東京十五日發】有田外務次官은 最近健康을 害하고 그任에 不堪인旨로써 十五日朝內田外相의 手許에 辭表를 提出하얏다

後任으로는 重光葵氏決定

【東京發電通發至急報】有田次官이 辭任한 代로 外務省次官은 前中國公使重光葵氏로 決定 十六日發令키로되엿다

有田次官이 突然 辭任하게된 經緯
意見不相容이 眞因

【東京十五日發電通】有田外務次官의 辭職은 病氣로 그任에 不堪이라는 理由가되여잇스나 有田次官은 芳澤前外相時代에 次官의 椅子에 就하야 在職一年이 되엿는데 聯盟脫退後의 外交局面에 對한 意見에 對하야 外務省內 一部의 强硬派와 不相容되여 自己의 信念을 貫徹치못할뿐아니라 省內에 反有田의 氣勢도 잇서 드듸여 辭意를 決하게 至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內田外相은 有田次官의 苦衷을 諒하고 過般逝去한 吉田伊三郞大使의 後任으로 土耳古大使赴任을 慫慂하엿는데 有田次官은 此際外務省과 一時關係를 斷하고 십다하여 이를 許하게된것이다

辭表提出에 對한 有田次官談

【東京十五日發電通】辭表提出에 對하야 有田外務次官은 語하되 나는 다아는바와가치 身體가 健康치못하고 在職이 미 一年에 及하얏슴으로 休養하고십허서 이미 內田外相과도 辭職을 말하어두엇슴으로 今日辭表를 提出한셈이다 따라서 內田外相은 慰留하지도 안을터이요 慰留밧어도 辭退할 생각이다 그러나 暫時 休養하고 십흔 外에 他意는 업다

十日後의 行動을 坂本司令官發表

【奉天十五日發電通】坂本○團司令部는 十日以來의 行動經過에 對하야 左와 如히 公表하엿다
十日夕刻부터 建昌營西方東寨庄을 目標로 主力軍을 移動하야 徹夜前進을 繼續하야 十一日朝 泰平寨、馬家庄、羅家屯까지 進出하고 夕刻灤河以東의 軍을 灤河로 擊退하고 十二日 軍渡河를 企圖하야 午前四時五十分頃에 飛行隊의 活動을 開始하야 對岸의 中軍을 猛擊하얏다 地上部隊는 山砲機關銃의 十字火로써 進擊에 進擊을 거듭하야 左岸의 敵을 一擧殲滅하고 五時四十五分 一部는 灤河를 渡涉하야 七時二十分 東寨庄을 中心으로 上方으로 松田部隊下方으로 高田部隊가 渡河를 完了하엿다
空陸兩軍의 猛擊에 中軍第六師主力及第一三二、第三八、第一一〇師의 一部約一萬이 擊破되여 現場에 遺棄한 死體는 一千三百으로 算하고 日軍은 負傷一六、戰死一을 내엇다 十三日前日의 猛擊에 敗退하는 中軍은 急退하야 軍司令部를 五里로 移轉하엿다 (奉五里十三日發)

中軍態度不變하면 反擊作戰繼續
武藤司令官聲明發表

【聯合新京十五日發至急報】武藤關東軍司令官은 十五日左의 重要聲明을 發하엿다
軍의 第一線兵團은 方今 灤線附近의 中國軍을 擊破하고 目的의 達成도 目睫間에 臨迫하엿다 然이나 今後作戰主旨에 關하여도 前般聲明에 依하야 明示되엿고 此際中國軍이 飜然從來의 挑戰的態度를 放棄하고 國境線으로부터 멀니 撤退할時는 軍은 即時 長城線으로 撤退하야 滿洲國內治安維持의 本務에 就할 意思가 잇다는것을 累次聲明에 依하야 임의 明示되엿다 然이나 中國軍이 依然態度를 變更치안을때는 軍은 如前反擊作戰을 反覆할수밧게업다는 旨를 玆에 聲明함
昭和八年五月十五日 關東軍司令官 武藤信義

戰債支拂問題의 米佛間主張懸殊
米、從前대로元利合支拂欲求
佛、獨賠償金受取比例를主張
前途는依然暗澹

【巴里十四日發電通】佛蘭西는 來六月十五日의 戰債支拂은 實行할意思를 表示치안코 臺頓會商終了後에도 主로 駐佛國大使가 佛蘭西當局과 此點에 對하야 折衝을 繼續하야 世界經濟會議開會까지 可及的結論을 짓기 爲하야 苦心하고잇다 然이나 米國側은 元本에 利子를 合한 金額即三百億法에 對하야 從來와가티 支拂繼續을 期待하고 何等讓步의 氣色을 보이지 안코 他方佛蘭西는 元本額만을 獨

學務課長과 試學官會議
廿四日부터 三日間開催

全鮮各道學務課長及視學官會議는 來二十四日부터 三日間 學務局長統裁下에 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는데 諮問事項은 左와 如하다
一、一面一校計畫의 進捗에 不拘하고 面에 잇서의 學齡兒童의 公立普通學校就學率은 依然히 低位에 잇고 이에 對策 및 僻陬地에 잇서의 簡易敎育機關으로서 書堂 및 各種講習會等을 指導助成할 方策
二、實業學校(實業補習學校를 含함)에 在한 將來實際의 經營의 要衝에 當하고 一層有効한 農、商、工、水產業者를 養成키 爲하야 그 設備及教育의 內容方法을 改善할 具體的方策
三、私立學校에 對한 指導監督의 現況及將來에 이를 徹底케할 方策

國府財政難으로 北中事態鎭靜難
銀行團과의 交涉失敗

【上海十五日發電通】駐平政務整理委員會財政部長王克敏은 任命後即時北平으로부터 上海에 至하야 北中의 財政問題、特히 雜軍整理費에 對하야 委員長黃郛와 協議하고잇섯스나 上海銀行團과의 折衝에 失敗하고 十四日朝南京에 赴하야 行政院長汪精衛等과 會見하고 北中軍費로써 月額五百四十五萬元、臨時費三百八十萬元의 支給을 要求한바 國民政府는 財政難으로 餘裕가 업슴으로
一、極力北中自體의 힘으로 稅制를 整理하야 收入增加를 圖할것
一、不足額만을 中央財政部로부터 補給할것
等의 方針으로 進行키로 內定되엿다 然이나 北中에서 如斯한 多額의 軍費를 求得하기는 困難한일이오 方振武등 雜軍頭로 至急解決을 要하는 反蔣系의 雜軍에 對한 懷柔策도 困難하게됨으로 北中事態鎭靜은 자못 樂觀할수업다고 觀測되다

故犬養首相 一週忌盛大擧行

【聯合東京十五日發】犬養木堂翁逝去한지 一週忌의 法要는 十五日午後三時부터 上野寬永寺에서 犬養家와 政友會의 合同으로 盛大히 擧行되엿다 『木堂大居士』의 位牌가 安置되여잇는 本殿에는 大禮服을 입은 故人의 寫眞이 걸려잇고 山門으로부터 本殿에 이르기까지의 境內는 西園寺公을 筆頭로 齋藤首相、鈴木政友會總裁、其他政界名士로부터 寄贈한 生花와 花輪으로 埋沒되엿다 定刻施主犬養健氏、鈴木政友會總裁、千代未亡人、芳澤前外相夫妻、其他親戚知己等朝野名士二千餘名이 參列하야 導師津梁院住職等의 讀經으로 莊嚴한 法事中에서 健氏鈴木總裁가 燒香하고 次에 千代子未亡人等이 順次로 燒香하고 四時지나 法要를 終了하고 五時에는 犬養家政友會名士들이 靑山墓地에 參列하야 法要를 行하엿다

新移民地調查의 朝鮮班準備成立
二十日頃渡滿할豫定

過般滿洲國及駐滿各機關 拓務省 朝鮮總督府參加下에 新京에 開催된 滿洲移民農耕適地調查班組織打合會議의 決定에 基하야 朝鮮總督府에서도 調查班을 派遣하기로 되여 官房農林局에서 準備를 進하고잇든바 農林局技師吉池四郞氏를 班長으로 第三班調查隊의 準備가 되여 來二十日頃京城을 發하야 滿洲開拓의 先驅者로 南滿으로 向하게되엿다 調查班의 第一、二班은 拓務省이 中心이되여 日本人移民適地를 第三班은 朝鮮總督府가 主體가되야 朝鮮人移民適地의 實地踏查를 行할것으로 調查의 目的은 氣象、土地、農業、農家經濟、一般經濟、其他衛生狀態及土地計劃、入植計劃等이다 一行은 一朝新京에 가서 關東軍、關東廳의 護衛隊、案內隊와 合勢하야 二十五日頃新京出發의 豫定이다 一行은 約五十名에 達하는 大調查隊로 踏查區域은 安奉線을 中心으로 東西의 地區及三角地帶全圖에 亘하야 約二個月間 調查를 行할것이다

滿鐵北鮮經營問題
日本對蘇聯關에 對한 外交交涉과 는달으다
◇……入京한 林滿鐵總裁談

朝鮮호텔에 來泊한 滿鐵總裁는 往訪記者에게 左와 如히 語햇다
今度來鮮은 雄基、清津、羅南의 觀察이 目的인데 北滿으로부터 入할 豫定이엇스나 急히 變更하야 이쪽으로 하얏는데 敦圖線連絡의 關係로 特히 이쪽으로 急來한것은 아니다 北鮮鐵道及港灣의 滿鐵委任經營은 目下村上理事가 總督府와 打合中인데 此는 國家를 爲하야 滿鐵을 爲하야서라도 速히 解決하고십다 그러나 方今萬事를 村上理事에 委任하고 즉 中間報告도 受치못하얏슴으로 自己는 조곰도 알수업다 自己의 腹中은 今回함말이 조곰도 업고 又滿鐵로서도 이 問題에 關하야 腹案基礎案을 가지고 此를 固執할 必要는 毫末도 업다 日本과 蘇聯과가튼 外交交涉은 아니오 갓흔 日本國內의 滿鐵과 總督府의 打合이다
今度村上理事의 來京도 總督府의 意見을 알고십흠에 止하고 問題는 決定되지 안는다 今後 北鮮三港은 滿鐵으로만 投資가 入할것이 아니오 單히 建設費를 ……로 할것은 國家的 立場이라하야 無條件으로 할것은 絕對아니다 委任經營後 稅關의 三……는 朝滿國境이 업스면 모르나 朝鮮內에 設置한것은 생각하지도 업다 其他水上警察管理權等 總히 自己의 白紙요 又委任後의 職制從業員等의 問題도 잇스나 總督府의 意見을 알어본後 進行할 생각이다 問題가 進捗되지아니하야 自己가 進出하야 왓다고……總裁는 大聲을 擧하야 哄笑한다
東中鐵道問題에 對하야는 滿鐵로서 鐵線이 如何히 되든지 無妨한 案은 恒常 생각하고잇다 如何間 世間에 傳한과 如한 大金으로 買收한다는 問題이다 그러나 此는 外交問題임으로 私見을 述할수업다
事變後 滿鐵의 事業은 著著伸張하야 特히 增資後에는 現著한 景氣로 되엿든바 今後는 熱河線도 齊齊物資가 投入될 모양이다 今期는 八分增配는 되리라고 생각한다

行政權含한 委任管理는 斷然交涉에 應할수업다
◇……今井田總監談

滿鐵北朝鮮經營第一回折衝은 技術官의 準備的交涉에 쯧치고 停滯되엿다는 消息을 待하든 十五日今井田總監은 同問題에 對하야 左와 如히 말하엿다
아즉 中間報告를 듯지못하엿슴으로 滿鐵側의 要求가 如何한것인지 交涉이 어느 程度外지 進行되엿는지 自己는 모르나 大體順調로 進行될것으로 推測한다 傳하는바 清津雄基兩港의 委任經營은 엇던 意味인지 解釋할수업다 勿論 滿鐵이 清津雄基兩港을 必要라고 港灣施設을 한다하면 考慮한것스나 港灣管理等은 絕對로 許容할수업다 又清雄兩港의 旣設한 港灣施設도 必要하다고 하면 規定에 從하야 貸付하여도 조흐나 그 委託은 할수업다 權을 云云함과 가튼것은 技術官이면 或모르지만 적어도 法理的頭腦를 所有하는 者로서는 如斯한 無理는 말할수업슬것이다 自己는 滿鐵이 營業本位의 立場을 떠나 朝鮮을 充分한 考慮中에 너주기를 希望하고잇다 勿論 吉會鐵道는 國策的 計劃線임으로 總督府로서의 見地에 基因한 犧牲은 不辭할 意思가 잇다 行政權 以外問題에 對하여는 條件次第로 可及的 速히 解決을 지으려고 생각하고잇스나 行政權을 包含한 委任管理는 斷然交涉에 應할수업다

英京倫敦頭驛에서 反나치스示威運動
國粹社會黨幹部歸國을 機會로
赤旗들고 檄文撒布

【聯合倫敦十四日發】獨逸代表로 倫敦에 잇서 軍縮問題에 對하야 英國側과 折衝中의 國粹社會黨領袖로젠버-크氏는 히틀러首相의 招電으로 갑작이 歸國하게되여 十四日朝倫敦의 리버풀街驛發 歸國의 途에 就하얏는데 로氏가 驛에 到着하자 突然群衆中으로부터 反나치스의 데모가 이러나 손과 손에 赤旗를 내두르면서 打倒히틀러 打倒파시즘을 絕叫하고 檄文을 撒布하얏슴으로 一時混亂을 呈하얏는데 警察官이 出動하야 示威群을 驛構內에서 내쫏차슴으로 겨우 平定되엿다

藍衣社暗殺團員 日本軍에 被逮
反蔣系暗殺이 目的

【天津十五日發電通】去十三日永平城外에서 日本軍警戒線을 通過하려는 怪中國人을 逮捕한바 上衣袖口에 暗號文書를 靴底에 그 解讀符號를 隱匿한것을 發見하고 取調한 結果 蔣介石命令에 依하야 組織된 公開體藍衣社의 暗殺團의 團員으로 三月八日부터 五月五日에 亘하야 百二十名으로 組織된 暗殺團을 各地에 派遣하야 北中本部와 秘密連絡을 取하면서 實行하려는者로 그 삐라·리스트에는 吳佩孚、石友三、孫殿英、萬福麟、胡漢民、馮玉祥、何柱國等 以外에 日本軍司令官 天津駐屯軍司令官 其他領事館首腦部도 包含되여잇고 特히 中村天津駐屯軍司令官、馮玉祥、于學忠、胡漢民에게는 三十萬元 其他에도 多額의 懸賞金이 걸녀잇섯다

四月外國貿易
輸入超過二千七百萬餘圓
◇大藏省發表

【東京十五日發電通】大藏省發表=外地를 含한 日本全土의 四月分外國貿易額은 左와 如하다 (單位千圓)

輸出	一三七、三一三
輸入	一六四、七七七
計	三〇二、一〇〇
入超	二七、四五四
一月以降入超累計	二一二、六九〇

西部隊密雲占領
中軍猛烈逆襲中

【奉天十五日發電通至急報】西部隊는 激戰二時間後十五日午前十一時密雲을 占領하얏다
【石匣鎭十五日發電通】西部隊는 疾風迅雷의 勢로 攻擊十五日午前十一時密雲의 中軍主力陣地를 占領햇는데 潰走하는 中軍은 午後二時에 至하야 我部隊에 對하야 猛烈한 大逆襲을 敢行하야 왓다 日本軍先鋒隊는 少數의 兵力으로 勇敢한 激戰을 繼行하야 約三個聯隊의 ○○○을 擊하고 後續部隊의 來着을 기다리고 只今激戰中이다

河北銀行 奉天支店閉鎖

【奉天十三日發電通】天津에 本店을 둔 河北銀行奉天支店은 事變後貸付를 中止하고 專히 事務整理에 貸付한 貸金의 回收만을 急히하고잇섯스나 債務者의 大多數가 逃亡하엿슴으로 回收가 如意치못하야 近日閉鎖키로 決定하고 行員은 天津으로 撤歸키로 決定하엿다

二大疑獄事件과 合同毛織事件
十六日判決言渡

【聯合東京十五日發】小川元鐵相等十六名에 關한 五私鐵疑獄 天岡元賞勳局總裁等六名에 關한 勳章疑獄事件과 藤田前東京商工會頭等四名에 關한 合同毛織事件等 三事件의 被告二十四名은 昭和五年十一月以來 東京地方裁判所刑事六部垂水裁判長係에서 併合審理中이든바 十六日午前十時約四年만에 判決言渡키로 決定되엿다

滿洲其他와의 四月貿易額

【聯合東京十五日發】大藏省發表四月中對滿洲國關東州中華民國及香港貿易概算은 如左함

輸出	三五、〇六八
輸入	一六、六九九
計	五一、七六七
出超	一八、三六九
一月以降出超累計	三四、五九五

盲目航海外他途업는 朝鮮海岸의燈臺設備

燈台一個가七十海浬를分擔한狀態 豫算關係로增設도不能

다도해(多島海)부근을비롯하여 조선연안에는 항해(航海)에위험한곳이만어 특히 사월말부터 칠월까지는 기푼안개가끼여 항행선박은 대단히위험을 박어배배로희생자를내는바 체신국해사과(遞信局海事課)에서는 전조선의 각등대수에게 일층충실히 근무하기를독려하는일방 일반 선수에게로 경고를 발하여만전의 주의를 독촉하고잇다 조선의 연안연장선은 구천삼백 이십오해리(海哩)로 백삼십오개소의 등대가잇서편균한대가륙십구해리를 분담하고잇는데 사실등대로부터의 광달거리(光達距離)는 이십팔해리에서 더밋치지 못함으로 사십일해리새는선박의보통항해속력을 한시간에 팔구해리로 가정하고 약다섯시간은 캄캄한 바다에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지안으면안되는 불안상태에 잇서 목하 전조선으로부터 이백륙십개소의 등대설치의 신입이잇스나 예산의관서로 일개년에세곳의 설치를 허가함에불과한사정에잇다

禮山,鏡城赤色事件

控訴에서도原審대로言渡되여 ◇京城覆審法院에서

일심판결에 불복하고 공소하얏든것이 공소공판에서 림회검사에게 역시일심판결대로 구형되고 재판장으로부터 또그구형대로 관결된 치안유지법및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이 십오일경성복심법원에서 두건이 잇섯다

◇ 충남례산 농업학교(禮山農業學校)학생 강봉주(姜鳳柱)등아홉명에 대한치안유지법 및보안법위반피고사거은 십오일경성복심법원에서 말광(末廣)재판장으로부터 일심판결대로 다음과 가치판결하얏다

▲姜鳳柱懲役三年▲鄭鎬浩二年▲韓定熙二年▲金奎煥▲吳日圭▲朴正淳▲朴熙南▲朴培滿▲金炯來以上六名은懲役各一年

◇ 또한경북도 경성군 주평청년회(鏡城郡朱坪青年會)원현초득(玄初得)등다섯명에대한치안유지법및보안법위반의 피고사건도 역시일심판결대로 구형한데대하야말광재판장으로부터다음과가치 판결하얏다

▲玄初得懲役三年 ▲尹昌孫▲崔長萬▲崔壬孫▲姜丁允以上四名은懲役各一年

侵入햇든竊盜가 即席에刑事行勢

畢竟警察에잡혀

원적을 강화군하도면상방리(江華郡下道面上坊里)에두고 재작년십월부터 시내 본정이정목이십칠번지 국정방삼랑(本町二丁目國政邦三郎)집에서 고용사리를하다가 해고되야 현재는직업과주소가 일정차못한김오룡(金五龍)(三五)은 지난이십일시내욱정이정목륙번지 중우근(中宇根)의집에 나타난 가형사(假刑事)의혐의자(嫌疑者)로 지난이십팔일 드듸여중우의 집근처에서 종로서원에게 잡혀범행을 자백하얏다는데 이제 그자서한내용을드르면 지난사월 이십일 중우의집에금품을 뀔취코저 잠입하얏다가 맛츰주인의 눈에 뛰워 경우가딱하게 되매자긔는 본정서에 근무하는 형사인데가택수색을 할일이잇스니 첫복순사를 불러오라고 주인에게 명령하고 그틈을타서 아무것도 훔치지못하고 도망하야버린 것이라하며 윤만안이라 그는전과 삼범사로서 국정의집에 고용되엿슬때에도 주인의거래처인 석총(石塚)에게 상품갑으로 이십오원륙십전을 횡령하고 해고된후 금년삼월중에또 권그국정과 거래하는 사람가등(加藤)에게서 금오원륙십사전 복삼(福森)에게서금십일원팔십전 탕촌(湯村)에게서 금오원 합계 이십이원 사십팔전을 사긔한일이 잇스며 그후 인장을위조하는등 이와가튼 범행이 륙칠차에밋친것이 발로되얏는바 취조를따라 범행이이상에밋칠는지도 모르겟다한다

中央實費診療院 經營難으로閉鎖

十五日理事會에서最後決定 醫師六人即席辭職

명마에서달리우면서병원도출입을못하는 빈곤한시민의 보건을위하야 거금삼년전 소화륙년오월사회 각방면의 성원을바더가지고류석창(劉錫昶)씨가창립하엿든 시내종로이정목 중앙긔독교청년회관상층에잇든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社會營中央實費診療院)은경영곤란에싸지어여러가지로 방책을강구중부득이하는도리가업시금십오일의리사회에서까지 문을닷치지안을수업다는결정을하여 당일로써의사여섯분 도사직원을 케출하야 십륙일부터는 문을 다치게되엿다 그간 실비진료원은 종로이정목에서 경영중 한번화재를당하여 일시천도교긔념관 상층에서 림시개업을 하다가 다시 현재의장소로옴맛든것이다 최초는 권두석창씨가 경영을마더 해섯스나그후현재까지는 의학박사 민병긔(閔丙琪)씨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내용을더욱충실하게 하도록힘쓰기는하엿스나경비지출이 곤란하여 가부간에도 여러가자로말이 만어오든모양인데 최후로하는도리가 업서 십이일에도 후원회총회를 열고 존폐문제를 토의한결과 부득이 폐원치안을 수업시되엿다는 결의를 하게되엿고 마츰내십오일에 다시리사회를 열고토의케 되엿든바역시 전기결의안을 통과케되니 소속의사 륙인도 즉일로직하야 폐원케된것인데 이와는사회의 긔관이문을 다친것은각방면에서 유감으로 역이는바이다

◇五月의主人牧丹花 (昌慶苑에서)

『死』의鐵橋漢江橋

橋上은服毒者,橋下는漂流屍體 異變接踵의初夏漢江

십사일아츰 한강인도교우 경성(京城)쉐스대합소에서 년령삼십칠팔세쯤된 조선사람이 고민하고잇슴으로 취조한즉 이사람은 석정근(石晶根)(三七)이라는사람으로칼모친 백알드리병을가지고잇스며 이미 쉬알을먹엇섯다 동인은 십일일 한강에싸진것을 구원방은분도잇고 정신에 이상이잇는듯하다

◇ 십오일 오전아홉시경 비개인 한강다리아래 년령삼십륙칠세된조선사람의사체(溺死體)하나가떠올낫다 룡산서에서 관계관헌이출장하여 검시(檢屍)하엿스나신원기타가불명하다

在滿朝鮮人民會 聯合大會開催

오월삼십일일부터 륙월일일까지 사흘동안 봉천조선인거류민회(奉天朝鮮人居留民會)회의실에서전만(全滿)조선인민회련합회 대회가개최되는바 이대회는 만주조선인의 자치적통제(自治的統制)문제를 주제로한전만최초의회합으로 출석자는 이번새로 설치된 북만사천개소의 조선인민회를합하여 약륙천개소의 대표자인바 제일일은 준비회의로하고 제이일은 관계관헌방면의 훈시가잇슨후 의제토의를 하고 제삼일은 계속하여의 건교환을 하고폐회할터인데 의케는 다음과갓다

一、八年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豫算의件
一、全滿朝鮮人統制에關한件
一、集團農村建設促進에關한件
一、全滿朝鮮人民會統一에關한件
一、在滿朝鮮人無籍者就職事務取扱에關한件
一、在滿朝鮮人에關한都市金融機關設置에關한件
一、其他各民會提出의議案

『爆擊에權威者』가 同僚를『刺擊』

泥醉한赤城航空士官이 술김에同僚를亂刺

【館山十三日發】 작십일일 오후 아홉시경에당지북조정(北條町)서양료리점가하미헌(加賀美軒)에서 목하관산만(館山灣)에 정박중인 항공모함 (空母艦)적성(赤城)의분대장대위(大尉)증아의치(曾我義治)(三五)와 관산항공대 (館山航空隊) 중위(中尉)청수수록(淸水壽錄)(二七)은 술이취한끄테 싸홈을시작하야 필경대격투가 일어나 증아대위는 찻던 칼을빼서청수중위의 등뒤로 부터청수의억개를찔러서 빈사의중상을 입혓는데급보를 바든 당지헌병분대에서는 현장에 급행하야 겨우진정식혓는데 가해자증아대위는 간사월에 당지항공대로 부터청분대장으로 영전한 해군에잇서서는폭격(爆擊)의권위라고한다

百餘武裝警官이 私邸官邸를嚴戒

五,一五事件의一週年돌을마저 森嚴한首相官邸周圍

일세를 진해케한오,일오(五,一五) 사건은 벌서만 일주년을맛게되여견양(犬養)전수상(首相)의 영전정(永田町)의수상관저는 어마어마한 경계를하게 되엿다 사곡(四谷)과국정(麴町)량서의 경관은아침부터 사곡에잇는수상관저에 정사복 경관오십명을 파견하야 경계하는동시에 관저로가는 연도(沿道)에는 요소요소를 직히도록 하는일방 관저에는 마흔일곱명의 정복경관과 수륙세명의 사복경관이 돌려싸서 관저로출입하는 사람에게는한사람도 남김업시 엄중한 검사를하야 허리에 권총을찬경관대의 물샐틈업는 경계는실로엄청스러웟다

알뜰한領收員 新町서警察에

천여원을횡령하고

원적을 향천현 향천부태전촌금리사십구번지 (香川縣香川府太田村今里)에둔좌등무웅 (佐藤武雄)(二三)은동부고송시통옥정(高松市桶屋町)지판안태랑(紙阪安太郎)의과자문옥(菓子問屋)에수금원으로잇든바최근에이르러 수금천여원을 횡령하야가지고 만주로 고비원주할 목적으로 서울에들러 몸을신정(新町)모유곽에숨겻든바지난십삼일밤본정서원의손에체포되야 방금엄중한취조를밧고잇다한다

平安道一帶에 頻頻한軍資請求

◇平原安州等地富豪들에게 上海○○團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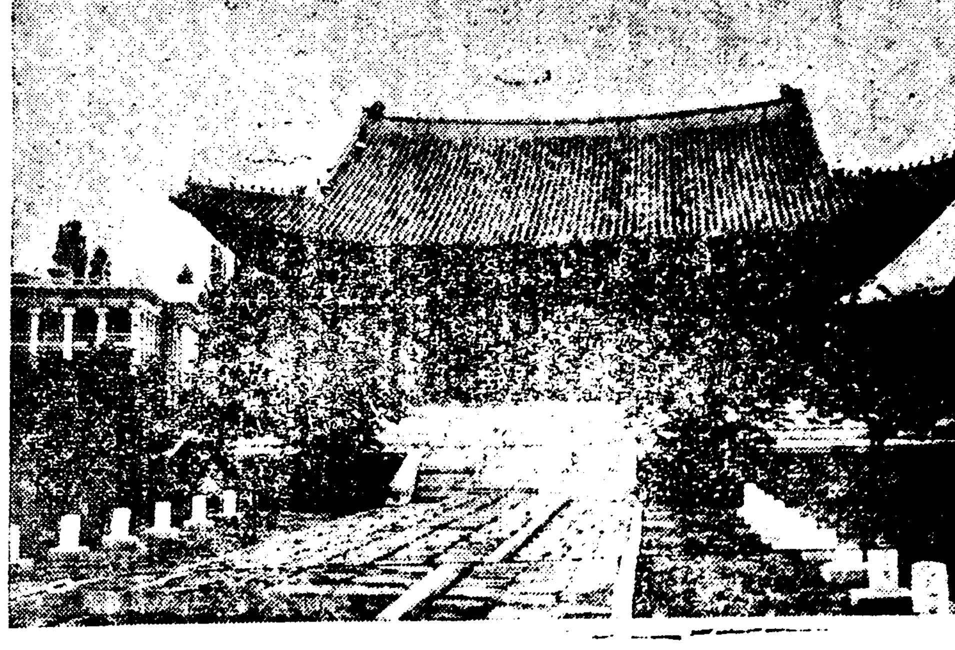
【平壤】 평원군순안면안암리(平原郡順安面安庵里)부호김윤제(金允濟)의집에지난십일일상해○○단○○부(上海○○○團○○部)라 서명하고 군자금(軍資金)을 제공하라는 과격한 협박문이 우편으로 배달되엿고동일 한문서가안주(安州)기타에도 배달되엿다는 것이며경찰은시긔가시긔인만큼긴장하여 극비밀리에탐사를진행중이다

엠엘黨 朴泉君出獄

엠엘당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 박천(朴泉)군

繁華尊嚴도昔日夢 古宮寂寥鳥獨啼

사람훗터새소리난지十五年 德壽宮의지나간半生 (一)



默默緘口大漢門이 十五年만에야開放

한번차면 한번이울고 한번일면다시한번쇠하는것은 천리와 인사의 면치못할바이라 흥하고쇠하는의자취를볼수록 굴롬과 구름거침가타서 깃부고상할것이 업슬듯하나 사람의정이란 눈에뒤고귀에들리는바 중흥의경우를 따라서는 늣김이다르지 안을수업는것이니 번상한일과 우연한자취에서라도 번화적막의 변함이잇스면 말못할감회가 스스로생기거든 한나라의정사를 로리하고수천만의 생령을마라 어듸보다 번화하고 어듸보다 존엄하든궁권이 예자태를하염업시 바꾸면 은 심상한행인의과객이라도 부질업시 거름을멈추우고 세상일의변천이 넘우나허무함을 탄식하지안흘것가? 묻다쳔지 십오년에 미술관으로 아동유원지로개방되는 옛대궐 덕수궁(德壽宮)의녯자취를차저보자

東洋風雲三十年에 關係깁든이德壽宮

덕수궁!이대궐은 리조말년에 가장관계가깁흔궁권이다 어쐬리조말년의 관계만이라 실로동양풍운에 관계깁흔 문케만흔궁권이니 이륙한지삼십년에 불과하나 길지못한그동안일망정 구비구비긔 파란은 어느궁권의그것보다 지나칠것이다 이궁권이 사나운비바람속에서 주초를노아 그수초가 미처다커지기도전에 이미가젓든 존엄을유지하지못하엿고 그리된지 또얼마안되여서 주인마커 잃어버린빈대궐로되여잇서 문닷친지 십오년을 그지업시 적막하얏다 닷친대한문(大漢門)은묵묵한속에 예일을조상하얏고 외로운새소리가 아츰저녁『개폐문』을대신하야 지저귀엿더니 이제와서 개방되여머지안흔장래에감추엇든 그얼굴이 쇠리업시세상사람을 대하게되엿구나

興亡이皆有數하니 滿月臺도秋草라

보리이삭의 무성한과 기장외욕어질을밧고 지어진궁권이 수천년을 내려오며 가득한 시을조리는자의 목소리만 구슬호게하얏고 『만월대(滿月臺)도추초(秋草)라』는두어마듸노래가 시조가입에서지노래하는미인의 입엣시울을 야릇이하얏슴뿐이니 귀수(鬼數)의관련됨을 어찌으로못하는건 누구나다아는바이 아강산이 옛빗을지니지못한오늘에 이궁궐의 이러함이 또한괴이할것업는바이라 이러의지난 래력을들추는것이 되어 것은아니로되 보통『자옥』이듯하는지라 볏의미를지킨것이 어서지못하든 그답안이 새로히 커더를면하는 그사이의 지난바 곡절을소개함뿐이다

◇사진은=덕수궁내중화전

染病또發生

시내황금정(黃金町)사정목팔번지 림필모(林弼模)(一九)가발병한것이 십오일오후에 대학병원(大學病院)에서 진단한결과 장질부사(腸窒扶斯)로판명되어 곳순화원(順化院)에수용하엿다한다

不義兒殺害

용인군고곡면마성리(龍仁郡高谷面麻城里) 오백십번디 홍귀례(洪貴禮)(三三)는상년전에그남편이 죽엇는데 약잇해전부터 그시부인패식련(貝湜連)(五三)과불미한관계를매저오다가지난삼월삼십일에 녀아를나아서 그호적을감추노라고 곳죽여서 뒷산에파무덧다는데 그일을 비밀히탐지한용인서(龍仁署)에서는지난십이일에전기남녀를인치하고엄중히취조한결과 필경 그범행을자백하엿다고한다

바요린과피아노 今夜洪金夫妻音樂

長谷川町公會堂서開催

『바요린이스트』홍성유(洪盛裕)군과 그부인김원복(金元福)녀사와의 음악회는 금십오일밤팔시부터시내 공회당에서열린다 먼저소개한바도 잇섯거니와 홍성유군은 『바요린이스트』로 정규의 공부를하고 이래만흔연구를싸어 그실력은 경청할만한 것이잇는분이다 부인 김원복씨도 피아니스트로 원숙한기능을 가진분이다 더구나 금야의곡목은 아름다운명곡을 골라 모든것으로 일반의인긔도 대단히놉다 회비는일원과 오십전과 학생삼십전이다

警官臨檢에놀라 二層에서跳下

阿片을피우든中國人이

십사일오후한시반경에서대문경찰서의주둔소집순사가서소문정(西小門町)삼십삼번지중국인류신삼(劉信三)(三五)의집에 영업을검사하려갓든바 배마츰아편을피우고잇든류신삼은순사의자최를보자 갑작이 피우든기구를던저버리고이층으로쪼차올나가서도망을할라고이웃집세통이통에손을못잡은지음에밧이밋그러저 돌이통과항가길우에떠러저서 부상한것을 붓잡앗다 밀매의 여죄(餘罪)가잇슴듯 함으로 서대문서에 류치시켜노코목하엄중취조중이라한다

訓鍊院一部를 府에서公賣

경성부(京城府)에서는부비훈련원(訓鍊院)의 일부오천팔백 십일평과서사헌정(西四軒町)일백팔십구번지의 이전(田)일천 삼백십평과 지장충단(奬忠壇)브근림야(林野)를공매하기로되어 십오일오전열시 부청에서 공매입찰한결과 훈련원의일부와서사헌정 전(田)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에 못되엿슴에 공매되지안코 장충단(奬忠壇)브근의 서사헌정(西四軒町) 산(山)사번디의이림야(林野) 사십평 서사헌정산(山)사번디의팔평림야(林野)오십평 구천륙백삼십삼평을매평십이원오십이전식 총가격십이만일천원에공매되엿는데 그낙찰자는 정목범이(正木範二)(黃金町)잇는 산사람이라한다

晉州鄭漢永 上告公判

十八日에開廷

치안유지법위반의피고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진주지청 (晉州支廳)을거처대구복심법원 (大邱覆審法院)에공소하야 징역일년의판결을밧고 고등법원으로상고한정한영(鄭漢永)(三三)의 상고공판은 십팔일 고등법원에서 궁본(宮本)재판장주임 하촌(河村)검사간여로 개정될터이라한다 동사건은 진주고등보통학교 (晉州高普校)재학중에 독서회(讀書會)를조직하야 사회과학(社會科學)을연구하며 ○○주의를 실현시키려 로동자와 농민들에 ○○를조직하야 활동을 개시하려다가 탄로된것이라한다

永同農組事件 被告審問은段落

求刑과辯論은十六日

【公州】 충북영동(永同)농민조합 사건과 동적우동맹(赤友同盟)사건의 장준(張俊)등멸한 사람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 사건의 공판은 그간공주지방법원(公州法院)에서 오륙차나 개정해오든중 이공판의최종 심리를 역시 지난구일 오전열시부터 제일호 법정에서 소산(小山利雄)재판장주심 풍도(豐島)중촌(中村)두배석판사 간여 검사립회 변호사 류정현(柳靖鉉)씨등 렬석으로 개정벽두에 전회에결정한 영동농민조합원과 로동청년회원중으로 증인을 호출한 鄭求禮 權昌植 張聖化 李春滿 李貽伯 尹道用 金仁甲 등일곱사람의 증인심문이잇슨후 이어서피고들의 최종심문을 맛치고 오는십륙일에 검사의론고구형(求刑)과 변호사의 변론을 하기로하고 오후여섯시경에 폐정하얏다한다

各務原飛行隊機 着陸과機體破損

각무원비행대(各務原飛行隊)조속팔팔식(八八式)정찰기(偵察機)백사십륙호(長谷川中尉操縱 町野中佐同乘)일전오십일호(森山砲兵一等工長 長谷川中尉同乘)의두대는 십사일오전열시반 만주에향하는도중 신창일에 잘못하여 개울에 빠지여 기체는손상하엿스나 해취수송하기로 되엿고 일편오십일호긔는 엷긔가 회복되흥을따라 출발할예정이다

棍棒으로亂打 雜貨를强奪

【新義州】 지난팔일오전세시경에신의주매지정(新義州梅枝町)에거주하는 최신곤(崔信坤)(三六)이가 신의주신흥양행(新興洋行)에서 모직물과면포 등 륙십원어치를운반하여 가다가 안동현(安東縣) 대화정(大和町)에이르러 주소부정의 안효삼(安孝三)외이명이 달겨드러 곤봉으로 전기 최신곤을 난타하여 치료이주일을 요할중상을 입히고 물품을강탈 도주하엿는데 그후안효삼은 신의주서에 체포되고기외두명은 아직미체포로 방금수사중에잇다

運動競技

普專·徽文各勝 大東依然首位

中東69點差로大勝

朝鮮籠球協會主催와本社後援의第三回籠球聯盟戰第六回은降雨로因하야一日間延期되엿든것을昨十五日繼續擧行한바中學部에서는徽文이中央을이기고 大東이養正을이기여依然大東이首位를保持하고잇스며 中東은道商을69點差로大勝하엿다 俱樂部로는普專이三角을壓倒的으로斷然리—드하엿다 當日에戰績은 다음과갓다

中等校勝率

順位		戰	勝	負	率
1	大東	5	5	0	1.000
2	中東	5	4	1	.800
3	養正	5	3	2	.600
4	儆新	4	2	2	.500
5	徽文	6	2	3	.400
6	普成	4	1	3	.250
6	道商	4	1	3	.250
7	中央	4	0	4	.000

○普專56……24三角×
{35 前 12 / 21 後 12}
同日午後六時二十分開始 審判金永述高丙畝兩氏쎄三十分

反	前	後	【普專】		反	前	後	【三角】
2	10	7	孫彼得	F	3	6	3	崔奉煥
0	8	3	金學洲	F	1	0	0	金廷漢
0	0	3	柳錫來					
2	0	2	廉百慶	C	0	0	0	金順鳳
1	0	2	崔界一	G	1	6	3	韓顯東
0	4	2	宋基字	G	1	0	0	柳熙成
0	7	0	閔潤震		0	0	0	李駿枝
1	0	2	金鍾岳		1	4	6	金龍安
6	35	21			7	12	12	

○徽文41…23中央×
{15 前 11 / 26 後 12}
十五日午後四時四十五分開始 審判金永述李昌楧兩氏쎄三十分

反	前	後	【徽文】		反	前	後	【中央】
1	4	14	尹承龍	F	1	4	2	朴相圭
3	4	9	金容武	F	1	3	4	朴 焉
0	2	0	簡正武	C	1	0	0	簡正武
1	4	1	李文鎬	G	3	4	5	武性復
0	1	2	閔泳夏	G	2	0	1	金振漢
5	15	26			8	11	12	

○大東26…18養正×
{10 前 6 / 16 後 12}
同日午後四時五十三分開始審判高丙畝金永述兩氏쎄三十分

反	前	後	【大東】		反	前	後	【養正】
1	5	6	金貴權	F	0	2	5	吳文澤
				F	0	0	0	徐光宇
0	4	3	朴東洙		0	1	3	朴洙鎬
3	0	0	徐洛淳	C	4	3	0	金景洙
2	0	2	金在春	G	1	0	0	韓世一
0	0	0	俞仁濬	G	2	0	0	鄭庚燮
1	1	5	曹東燦		0	0	4	宋鍾燁
8	10	16			7	6	12	

○中東77…8道商×
{23 前 4 / 54 後 4}
同日午後五時二十分開始審判張東旭李昌楧兩氏쎄三十分

反	前	後	【中東】		反	前	後	【道商】
0	0	0	金寧元	F	0	2	0	陳永得
0	0	8	洪憲錫	F				
0	4	7	申光浩		2	0	2	閔宅基
0	13	19	金致雲	C	3	0	0	金鶴權
0	2	0	安基淸	G	0	0	0	王建永
				G	0	0	0	俞大裕
0	0	8	辛在肅		1	0	0	李應浩
1	4	12	朴東漢		2	2	2	李勳默
1	23	54			8	4	4	

中等蹴球 普成高普優勝

普成專門學校主催와 東亞日報後援의 全朝鮮中等蹴球大會에는다음에成績으로 普成高普軍優勝하엿다

準決勝戰
○儆新 1…0 徽文×
○普成 2…0 京實×

決勝戰
○普成 4…3 儆新×

(普成) 柳立金金韓金申金車崔朴 / 光甲春成商泰原炳德稻孝 / 錫奉燮坤鎬熹麒禧俊恒濟
G LRLCRL LC RR / FFHHHW I IW
(儆新) 張鄭高金崔崔殷金朴崔李 / 明基龍允聖東芝柄仁昌鍾 / 濟華成河弼玉東駿哲鎔灼

主審劉滋基 線審{金考均 崔長壽}

徐廷權君 滯米期限延長

昨年부터渡米하야各地를轉戰하며人氣를끌고잇는 우리의至寶拳鬪選手徐廷權君은近近米國滯在許可期限이滿期가되여오든것을當地拳鬪界들은徐君이速키米國을떠남을愛惜히여겨마지아니함으로今番特히米國政府로부터六個月間의滯在期間延長許可를어덧다고한다

國際競技聯盟에 滿洲國參加?

滿洲國體育協會에서는 國際오림픽委員會에參加코저來六月獨逸에서開催되는同委員會席上에서 日本代表嘉納氏가 滿洲國의依囑을밧어同委員會에滿洲國參加를提案한다고한다國際聯盟에서滿洲國不承認決議를한데比하야스포—츠로부터滿洲國國際進出은의삼미진對象이다

라듸오

五月十六日 (火曜)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국수비빔만드는법) 日用品時勢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

▲午後〇時五分 京城府廳發表 雜歌 演奏

一、勸酒歌 二、역금 三、孔明歌 四、開城難逢歌 五、兩山道 六、바아라령 七、놀양 八、병신난봉가 九、景福宮打鈴 十、자진난봉가

金蘭紅

▲同 〇時四〇分 뉴-스

▲同 二時 家庭講座 育兒衛生에對하야(二) 安鍾鉉

▲同 四時 뉴-스 職業紹介事項

同 六時 唱歌劇 女王冠 兒童硏劇所兒童 指揮 金鳳冕

同 六時二五分 農業講座 果菜栽培法(二) 金雄珏

同 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 七時三〇分 趣味講話 露西亞의古代民謠(二) 成大勳

同 八時 獨唱과첼로 피아노獨奏(一部放送과同時放送)

一、첼로獨奏 (가)첼로피아노二重奏 前奏曲과라-르고(소나타)코렐리作曲 (나)오리엔탈作品五十무이作曲

二、메쏘 쏘푸라노獨唱 (가)따란카고리 山田耕作作曲 (나)라스와프라 되카라作曲 (다)歌劇 프라되아볼로中 처르리-네 아리아 【幸福스런아찰】오-베르作曲

三、피아노獨奏 파가니、에쥬드第六 A短調 리스트編曲

〇메소、소프라노 松原操 〇첼로 森屋比佐雄 〇피아노獨奏와伴奏 小田壽江

同 八時三〇分 俗謠 一、遊山歌 二、제비가 三、平壤歌 四、執杖歌 張彩瑄 李翠玉

同 九時 라듸오 드라마 黃金狂時代 朝鮮放送劇協會會員

配役 指揮 立禾月 金純 李四靑 金의동무李 金貴女 李의夫人 朴順禮 英叔 金英淑 女給 李萬福 거리의사내A 高一永 同 B

同 九時三〇分 時報 氣象通報 뉴-스 翌日프로그람發表

▲第一放送順序▲

五月十六日(波長三三三米) ▲午前六時三〇分(A)基礎獨逸語講座(十五)橋本忠夫▲同七時(A)ラヂオ體操▲午後〇時五分琵琶▲二時家庭講座 家庭に於ける法律の常識(二)▲四時(A)大角力夏場所實況(五日目) 國技館より中繼 ▲同六時〇分(A)童話劇 ▲同六時二〇(A)コドモの新聞 ▲六時二五分(B)基礎佛蘭西語講座(十一) ▲同七時三〇分(A)講演 ▲同八時三〇分(A)長唄老松▲同八時五〇分(A)ラヂオレヴュー

◇明日順序

五月十七日 (水曜) (波長四九二米)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미나리강회)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正午時報今日順序發表▲午後〇時五分 短歌와俗謠 李錦紅 尹玉香▲〇時四〇分 뉴-스▲二時家庭講座 育兒에對하야(三)▲四時 뉴-스 職業紹介事項▲뉴-스에이어서 野球試合實況 京城實業野球聯盟리-그戰 殖銀對鐵道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六時 하모니카獨奏 金頑圖▲六時二五分 農業講座 朝鮮의模範農村(一)▲七時三〇分 趣味講話 露西亞의古代民謠(三) 成大勳▲八時 (A)管絃樂(第一放送과同時放送) 東京라듸오-케스트라 指揮 瀨戶口藤吉▲八時二〇分 流行歌 金仙草▲八時五〇分 피아노白波 싸이올린 金永老▲九時 短歌拔萃 金素姬▲九時三〇分 時報 氣象通報 뉴-스 翌日順序發表

가정、아동

幼稚園을차저서 【五】

★幼稚園園遊會를압두고★

력사가오래된 화광과수표교유치원

수표유치원은왕래부인이책임지고 화광유치원은화광교에서경영해

수표유치원(상) 화광유치원(上)

◇화광유치원◇

가는비를마저가며 긔자는관수동천변을차저가서 화광유치원(和光幼稚園)으로 차저가게되엿습니다 화광유치원은 여러가지사회사업을 경영하고잇는 화광교원(和光敎園)에서 경영한지 이미구년이되엿다고합니다 구년간이유치원에서 수업을한 아동의수는 삼백명이나된다는 현재의원아는사십구명(그중녀아가십구명)이라고합니다 가정은전체적으로보게되면 중등정도이상의가정으로 아가정에서단이는사실부명을 괴로움보다는 항상얼골에 미소를먹음고 보육사업에힘쓰고잇는이는 박정자(朴貞子)윤순복(尹順福) 두분입니다 그중박정자씨는여러해동안을

화광 유치원에잇게 되얏스며 윤순복씨는 금년경성보육을졸업하고 학창을버서나 보육사업에발을드려노케된것입니다 긔자가 화광유치원으로차즐때에 광당(光堂)에서두분선생이 한분은피아노를치시고 한분은 어린우리들의아들과딸을다리고친진스럽게 노래를부르며 률동유희하고잇습니다 유치원에 보육교안은다른유치원과별다른점이업스나 이유치원내에 자모회(慈母會)가잇서서 이머니되시는분들이 대개교육을바든이가 만음으로배배로어머니의모듬이잇슬배에 육아법(育兒法)이든지 또는유치원과 가정사이에

련락 하는문제가튼것을토의하야 연규칙적으로잘진행하야나아간다고합니다 그럼으로 보모되시는 두분이물론가정방문도하겟지만 미리유치원이라는곳이 엇더한곳이라는것을 아시는부모가십분이면팔가량이되여서 일해나아가기가 자미스럽게된다고합니다 사진은률동장에서 공굴니는원아와 우는박정자씨이며좌는윤순복씨입니다

◇수표유치원◇

수표유치원(水標幼稚園)은수표교다리 엽헤잇는 수표례배당안에잇는 유치원으로서 이유치원이 창설되기는 지금으로 부터십이년이되엿다고합니다 처음에수표유치원을 경영하기는 성공회에서경영하게 되든바 지금은여기의도움이업고

현재 원장으로계신 왕래(王來)씨가 개인경영하다십히하며 유치원의경비를 써나아간다고 합니다

십이년동안 수표유치원 에서수업븐밧게된 조선의 싹들은이백십명가량이며 현재의 원아는 삼십명이라고 합니다 삼십명의소년과소녀는 비가 옴에도무릅쓰고 다팔머리를 흐들면서유치원으로와서 긔자가원사를 드러갈때에는 선생님들과 가티깃거웁게 자랑을하고 잇섯습니다 이와가티 어린니들을 동모삼아 또는아들과 딸과 가티생각하면서자란을 하고게신이는 오년긴에 수표유치원에 보모로취임하게된 최경숙(崔貞淑)씨와 중앙보육학교에서

실습 을하기위하야 수표교유치원에서 최청숙씨를 도웁는실습생들이엿습니다

오랜동안에나 이유치원에 잇는최경숙씨는 원아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자모회(慈母會)배에 잇서서 여러가지로 보육에대하야 가정과련락을취하야원만한인이라 한편으로는『신부』가 잇서서『유치원란』과『가정란』이라는데다가 아동에대한일동일정을 적어서틈별이 가정과련락을 취하고 잇다고합니다 (사진은 유희하는 수표의원아와최청숙씨)

女學校消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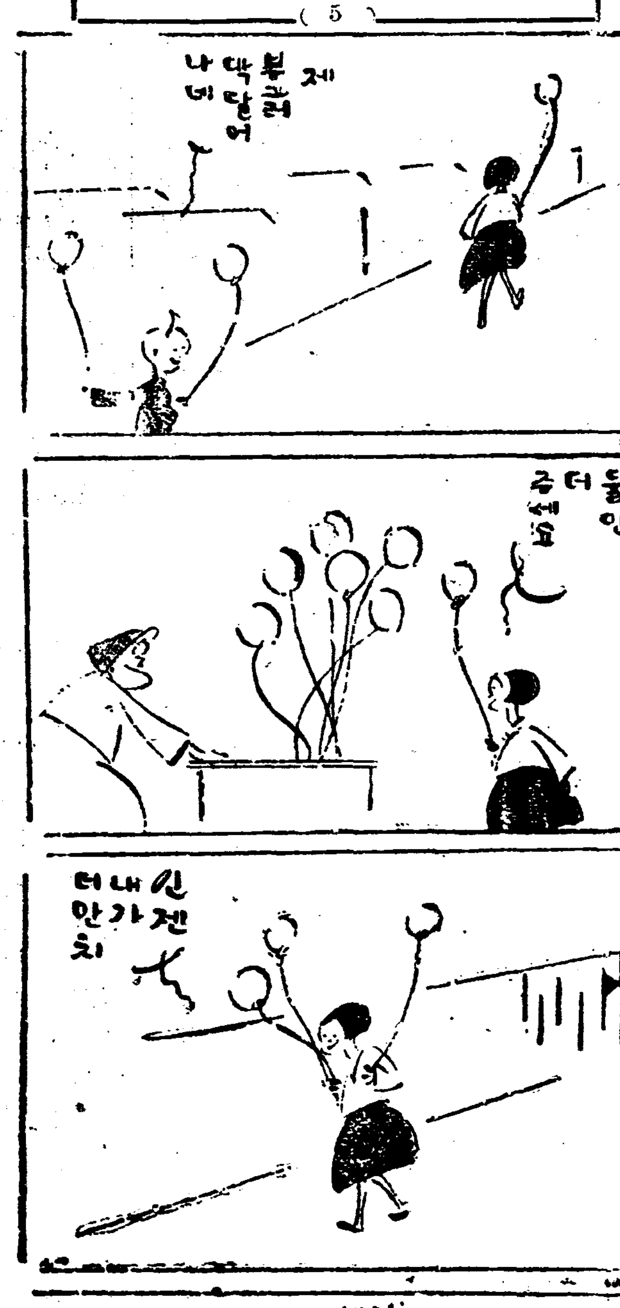
시내청진동에 잇는 경성녀자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에서이번에 교장독고선(獨孤璇)씨주선으로 새로운경영으로 됨을긔렴키 위하야십오일밤에 동교강당에서개교긔렴식(開校記念式)을 성대히 거행하엿다고한다

兒童漫畫

고무풍선

馬均

(5)



林巨正傳 (90)

洪碧初 作

곽오주二의一八

오주가 과부를방한중간에안치고 자긔는등으로 방문을가로막고안젓다 오주는 숙긔조혼사람이건만 평생처음으로젊은녀편네와 단둘이한방에 들어안즈니엇재계면적은생각이나서 물먹은벙어리가티안저잇고 과부는숨만 쌔근쌔근쉬뿐이요 손바하나깨딱아니하고 돌부처인사람가티안저잇섯다 오주가 처음사투을티는날행세로 빌어쓴망건이 머리에 테를메운것가티서 홀딱 버서버리고 머리스뒤를 극죽극죽하얏다 오주가 우선 과부와 성명이나 통하라고 무거운입을 열엇다 말은 하게안쓰고 웃업는반말을썻다 오주는 총각대접으로도 하게하는사람들에게 월쓰반말질하야 반말을 잘하는터이다

『나는 성은 곽가요 일흠은 오주구 나이는 스물다섯이구 고향은 강령인데 정처지집에서 머슴을 살어 임자는 성은 무어구 일흠은 무어구 나이는 얼마여』

말을 한마듸 한마듸 줄듯이말하며 오주가 년해 과부의얼굴을 바라보는데 과부가 못는말에 대답은 고사하고하는말을 듯지도 안는것가타얏다

『우리주인이 날더러 임자하구 가치살라는데 내맘앤조치만 임자맘에 엇던지익자나하구 가치살기실타면나두 구지 가치살자지 안홀테니 실커든 실타구 말해』

오주가 과부의말을 들으랴고 한동안거다리엇다

『나는 아직두 총각이구 임자는 젊은과부니까 가치살기실흘것 업겟지 또 가치살다가두 언제든지 실타기만하면 내가 두말안루 갈러설테니 그때 임자가 신배스굴가서 돌우 과부노릇하면 고만아니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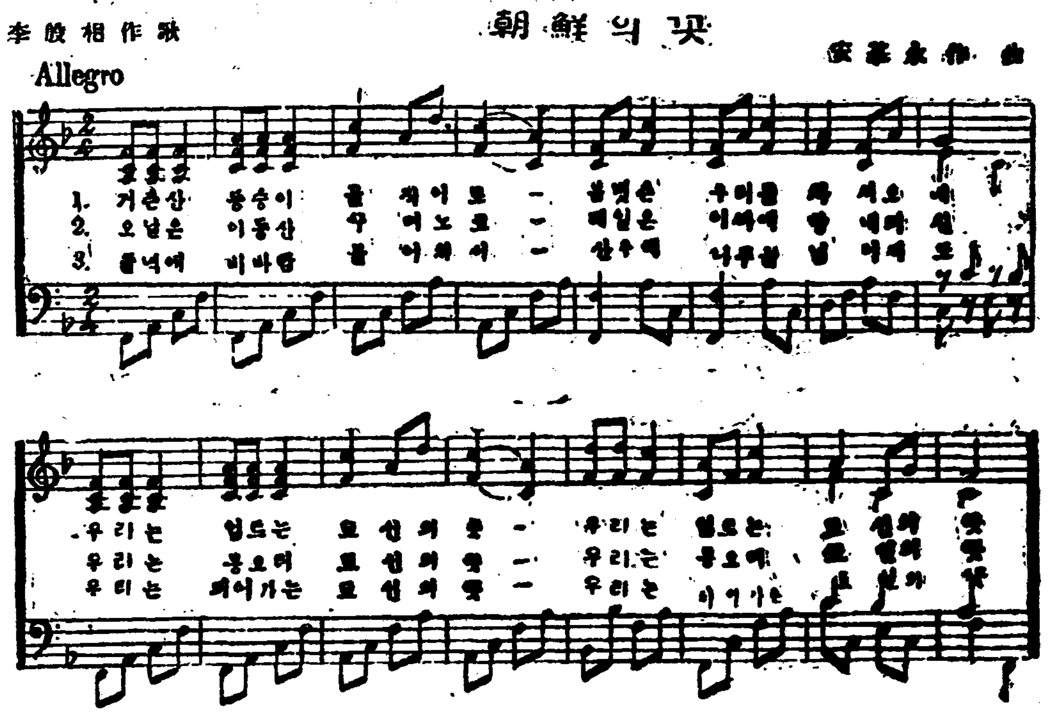
오주가 또다시 한동안기다리엿스나 과부는 입을겹겹이 봉한사람가티 말한마듸업섯다 오주가 선하품을 하고 활기지개를 켜더니 혼자말하듯

『고만 자보까』

하고 넘어나 아렛목에 가서 홋니불스족을 펼치엇다 그림가티안젓든 과부가 번개가티넘어나서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랴다가 하발도 채내드듸기전에 오주손에 붓잡혓다 오주가 한손으로 열린방문을 다친뒤에

『누구를 또찬물에 들어가게할나구』

하고 열열우스면서 과부를어린 아히가티 번쩍 안어들고 아랫목자리로와다 과부는손이잇서도 손을놀리지못하고 발이잇서도 발을놀리지못하고등신이나 달음이업시되엇다 남자는 잠이들며 곳코를고는데 녀자는눈만감고잇섯지 잠이들지아니하엿다 무서움과슬픔과 분함이모다 작이넘엇다 남자잡사는틈에 방문열고도망할생각이 돌지못할뿐아니라손못하나 꼼짝하고십지안헛다 녀자가 담을여러해울린뒤에잠갓지도안케 잠이잠깐들엇다가 꿈갓지도안케 꿈을하나우엇다 어듸를가는지도 몰으고 험악한산ㅅ길을 걸어가는데 뜻밧게어편아하우는소리가 귀에들렷다 소리가어듸서 나나하고 둘레둘레돌아보니 커다란굴속에 갓난아히하나가 누어잇섯다 아무생각도업시 굴쑥으로 또차 들어가서 그아히를 안꼬보니 이쁘게지 사람의아히든것이 곰의색기로 변하얏다 염작놀라서 내버리고 한번 살펴보니 여전히 사람의아히라 다시 안어보랴고할즈음에 난데업는 식컴은 곰한마리가 와서 아히를 쌔아서 안꼬굴밧그로 뛰어나갓다 곰이무서워서 얼른 나가지못하고굴속에서잇는중에 굴이헐썩문허지며 꼼작못하게치엇다 녀자가 잠이 쌔엿는데도가슴이 답답하야 눈을 뜨고니 볼울놓고보니 꿈에보든 곰의다리와가튼남자의팔이 가슴우에와서 언치엇섯다 그팔에손을 다이고십지안허서 둘어나려노치안코 몸을 비키어 니불밧그로 나가랴고하는데 팔이 옴직이는바람에 팔임자가 잠이쌔어서 니불밧게나간몸을 그팔로 끌어드렷다 날이새며남자는곳넘어나고녀자는머리를싸고누어서 넘어나지아니하얏다 이날부터 사흘되는 날까지는 녀자가먹도안코 줄곳누어잇섯고 나흘되는날부터는 오주가 주인의집에서 가지고온 음식을 우격다짐으로 먹여서 할수업시 조금조금 먹기시작하얏고닷새되는날부터는 잠간잠간 넘어안께시작하얏고 칠팔일된배부터는 찰끔찰끔한말이나마 오주와 서로말을하게되엇고 십여일지난뒤에는부엌에 나려가서 둘이먹을밥을짓게되엿다 동네사람들이 이것을보고 녀자를비우서말하는 사람도적지안엇스나 연분은할수업는것이라고 말하는사람이더만엇섯다



朝鮮의꽃

李殷相 作歌

安基永 作曲

(五月二十六日全京城幼稚園園遊會에서園兒一同이부를노래)

★✖◻◻◻✖★

일、거츤산등승이 꼼작이로
봄빗츤우리를 차저오네
우리는업드는 조선의꽃
우리는업드는 조선의꽃

이、오날은이동산 쑥며노코
래일은이땅에 햇내펴칠
우리는봉오리 조선의꽃
우리는봉오리 조선의꽃

삼、들녁에비바람 불어처서
산우헤나무를 너머처도
우리는피어가는 조선의꽃
우리는피어가는 조선의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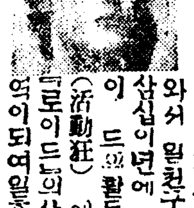
나의武勇傳 하로를延期

시내단성사에서 요사이 상영중인『마레론의비극』과가티봉절한 아동교육극『나의무용전』은각 학교의 단체관람으로 말미암아 십오일까지 상영하려는것을 부득하로를더 연긔하야 십륙일까지상영하게되엿다한다

世界名優紹介(四)

◇콘스탄스·컴민스

『와신톤』에서 출생하엿다처음에는『푸로-드웨이』의무대에서 활약하다가영화계로넘어와서 일천구백 삼십이년에『로이드』의 활동광(活動狂)에서『로이드』의상대역이되여일홈을날리엇다그는『파라마운트』에서도 출연하엿다출연한영화는『구토라스트』·『파레이드』『와싱톤·메리-!』(紐育의仇討)『와·라운드』『머·라스트맨』등이다



ラーヂ自轉車

輪界의驍將、再次出現

各地信用잇는自轉車店에서販賣함

ツブキ商會本店

誇張할三大作用

◎殺菌作用으로 皮膚病의菌虫을殺滅하고搔痒、疼痛、不快定을빨니除去식힘

◎消毒作用으로 患部의毒素를分解消滅하고內攻시키지안코毒을消滅케함

◎收歛作用으로 患部를收縮하고健康組織에復活하야治療를迅速케함

前記의三大特長은데-무水만이가진最大의지랑이외다

피부병퇴치

데-무水

●말은옴 ●옴부습진 ●무좀 ●옴 ●태독 ●부스럼 ●진무른데 ●가려운데 ●부름 ●헌어루럭이 ●버짐 ●癜風 ●鱗癬 ●죽은깨 ●濕疹 ●안창 ●여드름 ●가진데 ●오른데 ●벌럭● 모기·빈대等毒虫에게물닌데에는▲덧치지도안코▲앞프지도안코▲內攻도엄고▲들업지도안코▲냄새도업고▲눈에도안예우고▲앞픔과가려움도업서지고▲진물도것처저서빨니낫습니다

데-무水 藥價(廿錢、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 送料內地六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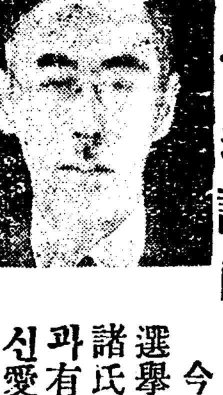
全國到處의藥房에서販賣함萬一品切될째에는代金을添付하야左記發賣元에注文하시면卽時送藥하겟슴니다

模造品이만흐니 必히데-무水라고指名하시고사시옵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六〇一〇〇番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南一二四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東京藥院

寫眞師 通信養成短期卒業後 就職紹介開業確保要四錢切手添照 京城林町一三九 京城高等寫眞專修院



當選謝禮

今般慶北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氏의深厚하신讚同과有志諸位의熱熱하신愛護를豪하와當選의榮冠을戴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禮합니다

慶北道會議員 慶山 足代守民

當選謝禮

今般龍城産業組合長選擧에際하야專知兪氏의深厚한愛護와組合員諸氏의熱熱하신讚同을입어當選의榮冠을戴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龍城産業組合長 黃珍洪

當選謝禮

今般全南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氏의深厚하신愛護와地方有志의熱熱한聲援으로當選의榮光을蒙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禮합니다

昭和八年五月 日

康津郡 金安植

第一劇場

五月十五日낫부터 每日二回 낫一時 밤八時 入替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新綠의凉味的興味 名畵와名曲獨唱

파라마운트社特作品 正喜劇 男子의正體 全六卷

파라마운트社特作品 하루-스깃리氏主演 活劇 불근고개서온男子 全七卷

嘉寶獨唱 金鶴實演

暴風雨乙우파社組特作 世界的大名畵 歸鄕 全九卷

名優하리케리氏主演 人間의道德正義는반다시이긴다

世界的名優 리아-로-主演

高級常設 朝鮮劇場 電光 二一八一番 仁寺洞

○朝鮮映畫藝術協會第一回作品 朝鮮映畫界의傑作篇突然封切

朝鮮映畫 犧牲 全九卷

豫告‼마루카、南海의劫火、蟾子夫人、시마론、獨立守備隊、米國擊滅艦隊、蠻林의王者、마음의靑춘、動物園殺人事件、故鄕의노래、千萬弗의醜聞

次週‼ 十八日부터特別週間

○다크라스의一代傑作‼ 로빈손구루소 全九卷

알룩、크라쓰되監督 시러순아주머니 全九卷

○파라마운트社特作 全發聲 하리웃드는大騷動 全九卷

월리암、보-데監督 스주아드、아윈、벤、 共演

○파라마운트社提供 골든、비아 全發聲日本版

喜劇大會 五月十六日낫부터(二日間)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優美館 電光 二九五番

喜劇 全二卷

女俠赤頭巾 全七卷

○米國부로주-사特作映畫 原作 하리-케-스氏 助演 아란해-루氏

마네킹英雄 全九卷

○와너부러더-스會社超特作 五月十四日晝부터特別大公開(晝夜二回興行)

專門 耳鼻咽喉科

沈相天醫院(入院隨意)

京城樂園洞一三七 교동오리거

トンテ

地方時評

古邑

四五年前만하여도 不過三十戶未滿되든 古邑市場이 只今은 精米所가 數三處 戶數가 百七十戶

◇

그나그뿐인가 今年에는 高山古德兩面聯合說과 農倉會

◇

高利得債等으로 너도나도하고 高利得債하야 너도나도 家屋建築競爭

◇

特別한 生產機關이업는적은 地方에 戶數와人口만增加된다면 그結果는不問而可知

◇

家屋建築에 熱中하고잇는분들은어떠한 先見之明을가지고게신지좀알여줄수는업는지

川

去九日부터 六日間 太田郊 ㅡ커스團이興行 每日平均收入이二百餘圓

◇

郡下에 窮民이 五千餘名 乞食者가 三百餘名이라함은 郡當局의 無違明確한統計

◇

一日平均二百餘圓 二六十二六日間이면一千二百圓

沙里院

쓰는곳도만코 고르롬지도못한것은 고흡에「돈」!

◇

最近某校에서는 六七年間在職한 敎員에게蓄처안은口實로辭告辭職을 敢行

◇

원체五六人에不滿한敎員에서 入無案하니 此所謂바른방식

一滴千金의 喜雨

十四日以來의 慈雨

農家는手舞足蹈

해갈밧게는안되나모판엔유족

各地의단비消息

【金泉】경북김천(慶北金泉)지방에는 근래드문 강우이계속되야 농작물은건열상태에 보불로 불쌍혹이심하며 수도물이 고갈되야 음료수까지 부족이되야일반민심이흉흉하든중 십사일에는 먹장가튼구름이 원하는물을 뎌허모든사람들은 하늘을우러러 오기를고대하든중 오후 한시부터는쏘다지는비에 험악하든 인심에노여지며 일반 농가에서는 죽엇다가 다시소생한것처럼 밤을새워가면서모판에물을대이노라고일대소동이난것갓햇다

【淸州】청주지방에는봄이래 예비가나리지아니하야일반농가에반년양식이되는보리 가거이고사지경일뿐안이라 양파이 구열되야일반은 극히우려하든바 십사일아츰부터일적천금의비가나리기시작하엿슴으로주름이잡히엇든농부의얼골은 구열되엿든양파가다피여젓다한다

【善山】경북선산지방(萬山地方)은 오래동안한발로농작물의피해는물론이고음료수까지고갈되여일반민간의소동은극도로험악하엿든바 지난십사일 오후두시부터 천금가튼 비가쏘다지기시작하야 나리는중이며 일반농가의 깃붐은 형언할수업다고한다

【長城】전남장성지방(全南長城地方)에는 일개월이상의한발로이하야 채소곡물은 거이말너죽게되고 모맥까지도 흉년을면치못하게되엿든바 십사일오전중부터 비가나리기 시작하얏는대 아직은 해갈밧게못되다고한다

사진설명… 元山春山幼稚園松濤園野遊會

授業料滯納兒童을 學校에서逐出

文川公普校의駭擧

【文川】함남문천 공립보통학교에서 수업료 체랍자에게청학켜분을하겟다는 통지서를일반학부형에게 발송하얏다 항은기보한 바어니와최근 수업료체랍한 아동은속시 수업도식히지안코 나로에온 어린아동들은 출석키는일이 매일갓치잇서 한달이라도 체랍한 학생은먼길을거러 그나마 배우겟다고학교를차저온것을 책보도 풀지못하게하고 쫏처내여 집으로돌아가는 어린야갓흔 아동들은 큰변에서 눈물을 흘리며 방황하는현상은 보는사람의 가삼을 쓰리게하야 학부형은물론이요 일반군민의 비난이 자못크다한다 이사건에 대하야 학부형모씨는

學父兄會開催코 善後策을講究

學父兄某氏談

말하되 교육의 중대한책임을진 선생으로서 어린아동의게 수업료를 체랍햇다고 쫏처보낸데대해서는 분하기가 이를데업소그리고 그런진관만한 어린것들에게맛는바 영향이중대한으로 근간학부형회를 개최하야 선후책을강구할터이고 학교당국의 무리한처사는 조곰도 용허할수업습니다

大阪十三敎會 聯合登山祈禱

【大阪】지난팔일에 대판에잇는 조선야소교회 십삼교회연합주최로 대판서원유지로 유명한 천리산(千里山)상에서등산기도회(登山祈禱會)를열엇다는데각처에서모인교도들은육백여명이엇다하며 천리산은 원유지대인만큼 원유객수천명이 무슨큰구경이나잇는듯이운집하야일시는 대호잡을일우엇다고한다

親族會議열고 不貞寡婦逐出

羅津李富豪家騷動

【羅津】구일밤에오십만원의거대한재산가로 일흠을 들리고잇는 당지신안동(新安洞) 삼오번지의김팔백동녀(金八百洞女)의집에는 그시가의 친족들이모여들어 친족회의를열고 팔백동녀를 내여쫏느니 안나가느니하여 밤의적막을 깨트리는일대풍파가 일어낫는데 들은바에의하면 팔백동녀는 지금으로부터십삼년전에 그남편을 여이고 이래홀은 시어머니를 모시고어린두자녀를 다리고 정상으로지내여오든바 작년가을에 그집에 유숙하고잇는 김등룡(金登龍)이라는 사람과 정을통하여왓다는데 그대로내버려두어서는 문중의체면에도 관계될뿐안이라간부(姦夫)의손에재산이탕진될것이라하여 그와갓치친족회의를 열고재산관리인으로리승주(李乘周)씨를정하고팔백동녀는 내여쫏기로 한것이라는데 지금도 나가라 안나간다하야 자웅이 계속하는중으로 이일이엇더케 귀결이 될는지일반이주목하고잇다한다

돈다업새고 밤거리방황

【平壤】근일평양부내에는밤이깁허진후 정신빠진 허수아비모양으로 밤거리를 방황하는사람이수를 증가하고잇슴으로 평양서보안계에서 이런종류의 사람들을 전부조사한결과 몸기분도시평양에 와가지고는 유흥비에떠서 돈량간을 작만해가지고는계집과술에 가젓든돈을 전부쌔앗기고 려비한푼업서 가도오도못하고 밤거리를 유랑하는 매이고잇는것으로 판명되엿다 금후평양서에서는 초사람을 유인하는 불량자들을 철저히박멸코자대마력으로 사찰을 개시햇다한다

리경찰에게출처아니하얏다는것이라한다

女吉弘 申元護 女龍秀 金東仁 金玉坤 高昌周 金宗浩 申敬然 金正泰 申東彩 成子先 吳應九 金永國 金南泉

예고생을무수히하엿다고하며작은지사개업해경과되엿다고한다

◇

사월십오일에 동면북동리(同面北洞里十?洞下)에서 또한시체를 발견하엿다는데 조사한즉 오대면송죽리(梧臺面松竹里)라는데역시정신병으로이하야 죽은것이라한다

팔여가기실소

(軒谷驛頭의一悲話)

【??】 ??일오후두시사십분 북행렬차가 헌곡역(軒谷驛)을 지나 다음 헌곡역두에는 나희사십세가량 되여보이는 녀자와 실패두에 되여보이는 가서로부동고 가느니 못가느니 일장힐란이 어렵엇섯는데 들은바에의하면 젊은녀자는 강원도고저(庫底)항에 거주하는김정해(金貞海)(假名)(二八)로평질전에그의생모정씨와같치헌곡을 단녀려왓든바 전리정씨는 자기 친딸임에 불구하고 그딸정해를 엇던사람에게 돈삼백원을 밧고 팔아먹을계획을 세우고 잇든중 이사정을 안정해는 자기몸을 돈에팔이고십지아니하야 그와가려 멀니도망하야 버릴작정으로 정거장까지왓섯스나그도여의치안어그만어머니에게붓들이엇든 이라한다

徐氏家中告訴事件 漸益擴大貌樣

被檢者가이미五人

【洪城】충남홍성경찰서(忠南洪城警察署)에는 지난십일일 동군구항면지정리(同郡龜項面支井里)서후재(徐厚載)와동군은하면금국리(同郡銀河面錦菊里)서재석(徐在錫)등 두사람의 연서로동군구항면지정리(龍項面支井里)서씨(徐氏)들을상대로 불법체포(不法逮捕)상해(傷害)죄로고소장이 제출되야 전긔피고소인중 서순필(徐順必) 서원모(徐元模)외두사람을방금검거취조중이라는바 이에 의하면 전긔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은 쌍방이 전부서씨로 당내간의친족들이라는바 그원인은현재횡령죄(橫領罪)로공주지방법원홍성지청(公州地方法院洪城支廳)공판에 회부되야심리중에잇는동군구항면지정리(同郡龜項面支井里)서창모(徐昌模)가서유범(徐有範)과 공모하고 긔만원의 종토(宗土)를구연재(具然宰)에게전당하고 현금사백원을 차용하엿슴으로 이것을알게된 서씨종중에서는 전긔랑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자유범은종적을 감추워버렷다 그래서 전긔피고소인들은 서재석(徐在錫)을 불러서 너의조카를 차저내든지그럿치아니하면돈을내여노라하고 서후재(徐厚載)등의멱살을잡고 구타하엿다는데 고소인들은 서순필이 사백원을 먼저내어 그도볼너서 또한그러한 방법으로 현금십원을 차즈여갓다하야 일반은금번서씨들의 종중싸움에 자못주목이크다한다

朔寧脚戲大會

【朔寧】음 오월단오를리용하야 경긔삭녕읍에서는각희(脚戲)대회를열야고 준비중이라는데 발긔인은좌와갓다

▲金順之 禹漢仁 李甲壽

屍體一個

【杆城】고성군간성면금수리(高城郡杆城面金水里) 김정옥(金正玉)은 지난 오월구일에 산재소롭리동면탑동리(同面塔洞里)약수곡산림내로 간바의외에 시체를발견하엿다 김씨는 놀래어 즉시 간성주재소에 고하엿다는데 조사해본즉동면금수리(同面金水里)정한(鄭漢)이라는데 수년전부터 정신이상이되

江原道江陵郡下 窮細民萬五千名

초근목피로겨우연명하는중

郡守의最近調查報告

【江陵】강릉군수가최근조사한바에의한 강릉군내에 궁민(窮民)과 세민(細民)은일본인십오호에 오십이명 조선인사천오백호에 일만오천구백십구명 이란 놀랄만한 수자를보여주고잇는데 이들은 불능방금식량이절핍되여초근목피로연명하고또굼주리잇다한다

龍川郡下 腸窒扶斯蔓延

【龍岩浦】평북룡천군내에서는 작년에 장질부사가 발생하여 각지 농촌에 창궐하고 사망자도 수십명에 달하엿스나 당국에서는 예방주사를 실시하엿고 ...

問題의慶南水組 急速實現準備

【釜山】락동강수리조합(洛東水利組合)창설에 절대반대의의사를 표시하여오든 락동지주회(洛東地主會)는 그동안 경남도당국과 종종의절충으로써 다소타협될 공긔가보이더니 써맛츰 동지주회의회장인 식전의부(植田義夫)씨가 경남도관선 회의원(慶南道官選會議員)의임명을밧자 세간에서도 이것이오로지락동수리조합결성촉진의정책이라하야 여론이분분하더니 십이일대저공립소학교(大渚公立小學校)에서개최된 동지주회에서 예산상 십삼만오천여원으로 뭉켜여정보를 포함한 경남수리조합창립위원회(慶南水利組合創立委員會)를조직하고 작십삼일에 동위원장식전의부(植田義夫)씨가경남도지사(慶南道知事)를방문하야 관게의사를진문하엿던 락동수리조합문제는 또다시분규의와중으로 드러가게되엿는데 문제의중심이될이 도회의원이라는점에서경남도당국에서도 한층더두통을 알는중이며 한편식전씨도 자긔의관선도의의수락(受諾)과락동수리조합결성찬반에와도 관련 별개문제인데 도로혀세간에 의론을살렴려가잇다하야 『경남수리조합의결정을 급속히진행식히는 중이라는바 일반은금후의 전개를매우주목하고잇다한다

엿슴으로 생명에는별로히 관계가업스리라고한다

開原幼稚園設立 十五日부터開園

【開原】개원부속지에동포가

東亞通航組合員 幹部十四名被檢

경관립회를거절한것이원인

擴大委員會는中止

【大阪】동아통항조합사회청년회는 중요간부들이 검속중임으로 부득이대회는 중지하기로되엿다하며 검속자중에는 윤응사(尹應仕)김수경(金守京)한상호(韓相鎬)림대진(林大珍)김영식(金泳植)외십구명은십이일에 석방되고 현재류치검속되엿는이는 좌긔와갓다하며 검속된리유는떠문한바에의하면확대위원회에 경관의립회를거절한것과대회에제출할의안이쇄한것을미

오래사는것귀찬아 九旬丈母扼殺

長淵郡下의慘劇

【長淵】십이일황해도장연군장연면 읍동리에서는 살인사건이발각되여 일대큰소동을 닐으키엿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탐문한바에의하면 동읍동리삼백오십이번지 김동호(金東浩)가 그동리 동장로인 전희선(田熙善)에게 차저와서 자긔집에서살든 자긔의 장모 김성녀(金姓女)가 세상을떠낫스니 공의(公醫)한테가서 사망진단(死亡診斷)을 자긔의안해 서인천(徐仁川)이와갓치 가서맛하다주기를 청함으로 동장과 서인천은 즉시 공의류경익(劉敬翼)씨에게 드러가 사망진단을 청하엿스나 그들의 태도가 이상하여 안코는 사망진단을 할수업다고 공의는 말하며 즉시 자동차로 출장하여 시체를검사하여보즉 허를내여민것이라든지 눈이붓고 동공이 커진것으로 보아 병으로 죽은것이 아니고 액살(扼殺)의 혐의가보임으로 즉시귀원하야 장연경찰에 보고하엿다는데 장연에서는 함사법계주임(咸司法係主任)이 대상형사(大上刑事)와 류공의(劉公醫)를대동하고 재검시하여보아도 더욱이 의심이롭흐하여질뿐아니라호주김동호가어대로인가종적을감추어피신하고도모지 보이지 아니함으로 읍촌의십이나 그전날밤에도 김동호가 자긔의장모를 때렷다는 소문까지잇섯슴을듯고 그날오후에 수사망을느리여 그를인치취조중인바 지난 십삼일에는 해주지방법원 송화지청(海州地方法院松禾支廳)국분검사(國分檢事)가현장에출장하야 속에서 시체를 해부하얏는데 극비밀에 부쳐으로 확실치는못하나 탐문한바에의하건대 에갓가운 자긔에게 태우지안흔 로장모가 항상두어잇서서 어려운간곤한살님에 곤란을밧고잇승을 귀치안케생각하여 그날집안식구가 업는틈을타서 목을눌러 질식(窒息)식혀 그와가튼잔인무쌍의 액살(扼殺)을 범행한 것이라한다

漁大津事件 繼續取調

십이명은석방

【漁大津】함북경성군어랑면지방동(咸北鏡城郡漁郎面芝坊洞)을 중심으로 어대진경찰서(漁大津警察署)에서다수청년을검거한후 검사까지 출장하야일반의주목을끌게하든모사건은사월중에 두차례에 이십명을청진검사국으로 송국한바 잇섯는데십이일에는칫년십이명이무사석방되엿스며동서에는아즉도잔류자가십일명이잇다고한다

風說에속아 愛妻를刺殺해

◇興南、湖南食道園에서

【興南】함남 흥남읍 신상리(新上里) 오십사번지에잇는 호남식도원에서 십삼일오전 사시경 살인사건이돌발하야 일대소동이 이러낫는데 그내용을 듯건대 범인은경성부훈정동(京城府薰井洞)출생으로 현재흥남읍동흥리(東興里)에 주소를두고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 공작계 직공으로잇든김룡근(金龍根)이오 피해자는강원도 통천군하 고저(通川郡下庫底)에원적을두고 현재흥남읍내 회룡호남식도원에너금으로잇는 강순옥(姜順玉)을 서양면도(西洋面刀)로 경부(頸部)외에 팔개소를 함부로 난자하야 현장에서 무참이도절명하게하엿다 동시에그집에잇든사람들이 처참한 비성에 놀나깨여 소동하자 범인은이층에서뛰여내려 내호압바다로달려나가 일수자살(溺水自殺)을도모하야 싸젓스나 해수가야러 목적을이루지못하고 서호까지 거려가다가 자긔의 봄법을 랑심

井邑에三人强盜 七十圓强奪逃走

井邑署犯人嚴探中

【井邑】전북정읍군북면신태인역부(井邑郡北面新泰仁驛夫)덕영번(德永繁)의집에 십이일 오후십일시경에 돌연삼인의강도가낫하나 덕영번의처가마사에게위협하고 현금칠십여원을 강탈도주하엿다는데 급보를접한 본군경찰서원은 톨셀룸업시 수사망을펴고 엄탐중이나 아직범인의종적은 오리무중이라고한다

地主敗訴

小作料請求訴訟

【大田】공주읍(公州邑)내에 지주 중강전길(中岡傳吉)은그의소작인인 리자련(李自連)과 리정화(李貞夏)리긔봉(李己鳳)등을상대로소작료청구소송을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에 제출하엿든바 이것을 소작조정령(小作調停令)에의하야 팔일공주법원에서 구간(久間)소작관의립회로조정하엿는데 원고중강의 주장한소작료청구는판사와구간소작관의알선으로 기각하게되엿다한다

楚山幼稚園創立式

【楚山】초산유치원창립식은 십일오전 십일시에 임시원사인 초산예수교회당내에서 거행한 ... 목씨의 의미잇는 ... 부터 창립에지의

잇천여호에 달하나 교육기관은 보통학교가 잇슬뿐이고 유치원업슴을 유감으로 생각하든바당지 기독교김운서(金雲瑞) 리익삼(李益三)등의 열성으로 오월부터 예배당내에서 개원하게되얏는바 일반사회의 만흔동정을바란다한다

상세한경과 보고가 잇슨후 보모 김병주 최원선양씨의 취임인사가 잇섯나자 내빈측대표하야 조민처씨의 축사가 잇슨후 계속하야 창립축하다과회가 열리여 주빈이 담소리에 오후두시에 해산하엿는데 당일 신입한원생이 륙십여명중 출석원생이 사십팔명 학부형급내빈이 백여명에달하엿다고한다 (사진은유치원창립광경)

집이문어저서 人夫即死

중경상자도다수

【信川】십이일신천군신천면원암리(猿岩里)류십번지김룡서(金龍瑞)는인부를고용하여자긔의집을수축하든중당일오후륙시경에돌연히집이문어저서현긔김룡서의가족들과 인부들까지 합하여십여명이 부상하엿는데 그중에이부로왓던 동리김선달(金善達)이는 현장에서즉사하고 그외에는 모다중경상을당하엿다고

【文川】함남문천군(咸南文川郡)에서는 잠업장려를극력장려중이든바 금년은 소림매수가 삼천여매로서축년증가하는현상이라하며 각면별로보면 ▲郡內面 四九三 ▲明孝面 五一一 ▲龜山面 三八九 ▲都草面 六八五 ▲雲林面 一、一七〇

【春川】강원도위생과에서는 오월일일 아동애호데-를 긔하야 춘천군내각보통학교와 소학교등아동의변검사를하야긔생충(寄生虫)검사를하얏는대그중춘천보교와동소학교아동의상황을보면 보통학교는 검사아동일천사명에대하야유란자가실로구백륙십오명(九六、三一%)으로그 내역을보면

蛔虫 九〇四名 九一、二一%
鞭虫 二一五名 二一、四三%
指虫 一四八名 一四、七五%
條虫 五名 〇、四九%

【文川】문천에서는 각면사무소또는 각학교등에서 일제히 어린이 긔렴식을거행하엿는바 팔일에는 구산면(龜山面)과신흥리(新興里)에서도 백여명부형의 참집리에 강화가잇섯다

【華川】김화읍내 (金華邑內)미앙관(美央館)료리집에 마선준(馬善俊)은십 ... 고자살 ... 권한시에 ... 하엿든바 탐문한바에 의하면그는미앙관에잇는기생매화(梅花)(假名)(二〇)라는기생과남모르게 김흥정이드러 사랑을 속살거리여오다가 마츰내 돈이업서갓치 살수업는것을 비관코 독약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발견하고 즉시의사를 청하야응급수당을하엿스나구원치못하엿다 한다

【奉化】봉화경찰서에서좌긔일할과가티내성면(乃城面)춘계경종을한다고한다

五月十八日花川里 十九日三溪里 二十日西谷里 二十二日巨村里 二十三日石坪里 二十四日海底里 二十六日赤德里 二十七日都村里 二十八日浦底里 二十九日文丹里

但雨天의日程은最後日로延期

【陽德】지난오월십일에청

천군별창농민공생조합(成川郡別倉農民共生組合)에서는 자긔와여히임원을선거하얏다고한다

▲組合長鄭昇龍 ▲專務宋秉殷 ▲常務李炳鶴

【江津】십오일 용진신사 져가필한후그연혜인는 집법이에 불이나 일동을 연소하얏는데원인은 담배춘동이 떠러진듯하다한다

【大田】대전시내에 거주하는음식점(飮食店)과식육(食肉)판매업자에게 십팔일부터이십이일까지 매일오후한시부터 대전도립의원에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바 십오일까지 대전경찰서에게출하기를바란다고

【郡北】경남군북공립보통학교학부형회에서는 제이회정기총회를 십삼일 정오에조회식 (趙德植)씨의사회로동교교당에서개최하엿다는대 림시집행부(臨時執行部)선거에잇어서의장 조희식 긔록변긔섭 조경제사찰 안상열 조정제 제씨를선거하고 의사를 토의한후 현교장인서정양(西正良)씨의검상담이잇나자오후네시경에 폐회하엿다

【宣川】수일전에 삼봉(三峯)서소한마리가 죽엇는데구일에북면석화동(北面石和洞)림긔창(林基昌)의소가방홀갈다가갑작이 죽엇슴으로 농민들이크게우려중이라한다

【新上】함남정평군 광덕면부평리 리선숙(李善淑)의집에 장질부사가 발생하야 현재두사람의 환자가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외에 문산면 동천리(文山面東川里)한종긔(韓鍾基)도 장질부사에걸녀 신음하고잇서 일반은불안에 싸여잇는바 이가튼전염병환자를 은익하는관계로 예방상크게곤난하다고당국자들은두통을알코잇다한다

【車輦館】평북철산군 철산면부영동(平北鐵山郡鐵山面富永洞)영락학교(英樂學校)의 교사를 증축하는데 일반학부형들은 정신적원조와 거축긔금을소유한 학부형들이 무보수(無報酬)로 거축노역을하엿다한다

【鎭南浦】진남포 억량기 감리교회 (鎭南浦億兩機監理敎會)에서 십일일오후여섯시반에동화대회(童話大會)를개최하엿는데 박신영(朴信永)씨의개회사가잇슨후 박은래(朴恩來)류귀봉(劉貴鳳)강정숙(康貞淑)세선생은 차례로 동단하여삼백여명아동들에게 자미잇는 동화로 대성황을일우웟다한다

숩먹고화김에 自家放火

【春川】김화군원북면감천리(金化郡遠北面甘泉里)박창오(朴昌吾)는 가난한 살림사리에 싸달녀오든중 지난오월일일에도 량식을사라고 외출하얏다가 화김에술을잔뜩먹고 동일오후네시경에 집에 도라와죽기달리고 잇슬줄안해김씨(金氏)조차어대로가고 업슴으로 쏘삼한생각이 한업시이러나로 세상을비관한듯해 져집에 다가석량을그어대여 맛침내 김화서에서 취조를 밧아 오든중 십일일 건서류와함께 철원검사국에송치되얏다한다

鎭南浦體育定總

【鎭南浦】진남포체육회정긔총회(鎭南浦體育會定期總會)를 십삼일 오후다섯시부터 상춘관(常春館)에서 회장홍긔주(洪箕疇)씨사회로열고 과보고와 결산보고가잇슨후 다음과가터 임원을개선하고 신사업론의에 들어가서는리사회(理事會)에일임케되엿습으로 일간리사회를열고 신사업계획에대한 토의가 잇스리라는바 금년은 례년개최하여 보지못한 륙상(陸上)축구(蹴球)정구(庭球)대회갓흔것도 되도록개최하여보려고힘쓰는중이라고한다

◇任員 會長洪箕疇 理事長尹茲元 金養植 事興中洛 李正 安致化 韓鍾範 基周 徐得範 崔承杰 黃致秀 韓晶東 安尙燁

사흘굶고 老婆縊死

【善山支局】지난구일정오경 북선산군 선산면 죽장리 (善山郡善山面竹杖里) 리치언(李致彦)의실모 윤점단(尹點丹)은 낙물오게 자긔침실에서목을 매여 무참히도 죽엇다는데자살을하게된 원인은 윤점단의아들 되든 전긔리치언은 어려서브터 빈한한 가정에 태여나그날그날의 생도를 구하지못함은안이라 칠십이된 로모를 먹여살닐수업서 남의집고용사리를 하여가면서 연명해왓스나 식구는들어가고 수입은커녕보다 줄어서도저히 죽한에도안심하고 먹을수 업게되엿든바 근일은 극도의생활난으로 그가족이 삼일전부터죽한술 어를 먹지못하고 굶주린창자를 움켜쥐고 세상만 비관하고잇다가 목을매여 죽은것이라한다

同業競爭者에 對한憤푸리로 客을亂打

【榮山浦】십일일오후사시경 전남영산포(榮山浦)서야모(西野某)의집에서는 류혈참극(流血慘劇)을일우어 경관의진무로겨우 해산이되엿다는데 이제자세한내용을듯건대 전긔 서야모는 주류제조업을하는중 그압집

强盜마젓다 虛僞告發

바더오라는돈써버리고

【舒川】구일하오여덜시경충남보령군 대천면대천리(保寧郡大川面大川里)김진국(金鎭國)은 동군웅천면(熊川面) 고개(峴峴)에서 식도가진 강도를만나 현금십오원오십전을 강탈햇다고 보령경찰서에 고발하엿슴으로 급보를바든당국에서는 최사범주임이 십여명경관을 대동하고 범인체포에노력하엿스나 하등의단서를 엇지 못하엿음으로 의심이든 전긔피해자를 호출하여 취조한바 허위고발을 자백하엿다는데 그는자긔부친이 바더오라는돈을 낭비하고 그와갓치 허위고발한것이다

納幣金返還코 解決

데리사위破婚終幕

【文川】함남문천군도초면문평리(咸南文川郡都草面間平里)왕긔(王?)김희준(金熙俊)의장녀 김희순(金熙淳)과 천내리(川內里)리춘섭(李春燮)장남간에 데릴사위의파혼사건은 신랑측에서는 드듸어양방사돈이 조안키서 피차에 실랑한 구만두자고하고 이미보내엿든 련폐금은 신부아버지 김희준이신랑측인 리춘섭에게 반환하얏슴으로 대릴사위파혼사건은이로써해결되얏다고한다